

ISSN 2383-9872

밑불이 되고 불씨가 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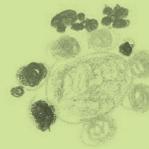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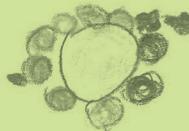
2019년 봄



노란달팽이



(사)노란달팽이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공장「노란달팽이」
 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 표지그림
이연옥

무상급식 마련 후원마당
주점·바자회

2019 노들장애인의학 평등한 밥상

일 시 : 2019년 6월 15일(토) 오후 1시 ~ 10시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25-323501 노들아학

장 소 : 노들장애인의학(*어린이 놀이방 운영)
문 의 : 02-766-9101 / nodeul@hanmail.net (노들아학 사무국; 전수)

‘평등한 밥상’을 위한 노력. 함께해요~



노들바람 이야기 구성



노들바람의 '노들'은 노란들판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판에 넘실대는 결실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들판을,
그 대안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들 말입니다.

제118호 2019.02

만든곳 (사)노란들판·노들장애인의학·노들장애인지원생활센터
장애인자립공장「노란들판」·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발행인 박경석 편집인 김유미
편집위원 김도현 김명학 김상희 김진수 정소영 민아영 조상필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140 유리빌딩 2층
전화 02-766-9101-6 전송 02-2179-9108

홈페이지 www.nodeul.or.kr

전자우편 nodlbaram@gmail.com

디자인·제작 (주)크리에이티브 다다(02-518-1571)

* 「노들바람」은 크리에이티브 다다에서 디자인을 기부해 만들어진 책임입니다.

- 02 노들바람을 여는 창 * 김유미
- 03 '잇는다'는 것은..... * 장선정

- 04 **[고병권의 비마이너]** 여기 사람이 있다 * 고병권
- 06 그들을 죽인 것은 작동하지 않은 스프링클러가 아니다 * 정성철
- 09 말로는 폐지, 하지만 실상은 가짜 폐지? * 박철균
- 14 차별의 벽, 아픔의 벽을 함께 넘는 노력 * 김호세아
- 16 노들과 나의 인연 * 강윤중
- 19 **[형님 한 말씀]** 2019년을 맞으며 * 김명학
- 21 **[노들아 안녕]** 노들공장 적응기 * 서민정
- 22 **[노들아 안녕]**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 현장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 김유진
- 24 어쩌면 여기서는 함께 살아가 볼 수 있지 않을까 * 정진영
- 26 노들 신입활동가 교육을 마치고 * 장준호
- 27 사단법인 노란들판 로고 '디자인' 이야기 * 고수진

- 29 우리가 기록한, 아학의 모날모순! * 유지영
- 34 **[교단일기]** 우당탕탕 낮수업 파이팅 * 김지예
- 38 낮수업, 긴장감과 허기짐의 이유를 찾아서 * 이화영
- 41 **[자립생활을 알려주마]** 연순 아파트 * 고권금
- 44 **[나는 활동지원사입니다 1]** 활동지원사의 보람 * 김향길
- 46 **[나는 활동지원사입니다 2]** 근육장애인 K씨와의 인연 * 윤샘

- 48 노들과 함께한 예술인 파견 사업을 통해서... * 도저킴
- 49 증명사진 * 박정숙
- 51 **[대학로야 같이 놀자]** 니들만 노냐??? 나도 놀 줄 안다!!!!!! * 송은영
- 54 My Darling 노들아학! * 박준호
- 57 돌리고 그리고 춤추고 노래한다! * 김진수
- 60 우사인볼트의 100m와 소민-영애의 이어달리기 사이에서 * 유기훈
- 65 노들아학의 1년을 책임지겠다! * 박임당

- 69 2009년, 우리는 거주시설에서 모든 것을 걸고 탈출했다 * 김진석, 김진수
- 72 노란들판, 영화 <어른이 되면> 시사회에 다녀왔어요. * 해니
- 76 **[노들책꽂이]** 창조와 한나, 그리고 나 * 최재민
- 79 **고마운 후원인들**

노들바람을 여는 창

김유미 <노들바람> 편집인

그저 기분이겠지만. 요가를 하다보면 호흡, 그러니까 숨 쉬기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목표 자세와 내 몸이 불화할 때, 이전보다 길게 자세를 이어가 볼 때, '호흡에 집중하세요'라는 지도자의 목소리를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호흡에 집중해보는 시간이 늘고, 그런 나를 알아차리는 때에 이른 어느날. 저 자신이 살갓죽으로 이루어진 호흡하는 기계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숨과 날숨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을 뿐인, 나는 숨이 드나드는 빈 통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빈 종이, 빈 화면 앞에서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빈 통이 되어 컴퓨터 앞에 앉아 사람들이 쓴 글을 읽고, 내가 할 말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도무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 사진첩을 열어보았습니다.

지난 겨울, 저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행진과 문화제에 몇 차례 참석했습니다. 어느날 광화문광장에서 416합창단이 김 씨 어머니 김미숙 씨를 위로하고 노래하는 장면이 사진첩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봄, 며칠 전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고 황유미 씨의 12주기 추모제에 다녀왔습니다. 반올림 상근활동가들이 무대에 올라 선언과

다짐을 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추모제에서 고 황유미 씨의 어머니 박상옥 씨는 “저는 이겼는데도 왜 이렇게 허무한지 모르겠어요. 허무하고 가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라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삼성반도체 피해자들은 지난해 말, 삼성과 합의를 시작했지요. 삼성을 상대로 농성하던 강남역 앞의 천막도 철수했습니다. 그렇기에 어머니의 말이 제 안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같은 무대에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저는 희망도 없고, 미래도 캄캄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용균이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들 억울한 누명 쓴 거 그거 풀고,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얼마나 내가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싸우겠습니다. 나라가 저를 힘들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힘내서 싸울 것입니다.”

두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면 목구멍이 꼭 막혀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어렵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셔 봅니다. 이번 봄, <노들바람>이 고통과 기억에 관해 말을 주는 느낌입니다.

‘잊는다’는 것은…….

장선정 노란들판

남동생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1월 새벽이었는데, 이 추운 아침에 도대체 누구냐며 전화를 받았다가 통화 중간에 휴대폰을 던져 버렸어요. 사실이 머리에 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즉시 행동을 해야 하는 막막하고 외로운 상태에서 가진 돈으로 택시비를 낼 수 있을지 걱정하며 시경계선을 넘었고, 이어서 시신을 확인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타지에서 장례를 치르고, 사망 진단서를 받아 화장해서 집으로 데려 갔어요.

유난한 아들이었고 살가운 남매 사이도 아니었던건만, 후로 꽤 긴 시간을 제대로 살지 못 했어요. 잠을 자지 못 했고 술과 약이 필요했으며 아직 아끼었던 아이와 직장은 번번이 방치 되었죠. 이렇게 쓰고 있지만 실은 그 시간들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게 15년쯤 전이에요. 지금은 그런대로 그만하게 살고 있어요. 누군가 형제가 어떻게 되느냐 물으면 ‘과거를 말해야 하나 현재를 말해야 하나.’ 망설이고 어쩌다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되면 몰래 몇 번 다시 보는 정도죠. 슬프다가보단, 삶의 어떤 순간과 과정이 쓸쓸하고, 사진처럼 찍혀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이 통제를 벗어나 떠오르고 돌아다니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달까 그래요.

원래는, 아주 조심스럽지만 ‘세월호’에 대해 무슨 말인가를 하고 싶었어요. 봄이면 5년이 되잖아요. ‘기억하겠다’는 말은 ‘언제나’가 아니라 ‘어쩌다’인 것 같을 때가 있고, ‘잊지 않겠다’는 말도 항상성에서는 비껴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러다 누군가나 어디선가에서 시간이 흘렀다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마음만 아프고 되돌릴 수도 없으니까 ‘이제 털어내 봐야지’라고 할까봐 지레 겁이 났어요.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쿠르스크’라는 영화의 예고편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런 영화를 개봉 하는구나 그래도 되는 걸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갈수록 모르겠는 마음이 들어요. 어떤 작가는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고통의 이유를 찾는 것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썼는데 저도 모르게 아마 그 말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았어요.

제가 달지 못 했던 심연의 무언가에 대해 알고 이해한다고 하려는 건 아니고 ‘괜찮을 때도 되었다’거나 ‘산 사람은 살 궁리를 해야지’라는 말은 적어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이 말이 하고 싶었나봐요.

마음을 이렇다하게 설명할 순 없어도, 가방과 필통에 달려 있는 노란 리본이 낡아지면 새로 바꿔 달고 차 뒤편에 붙여 놓은 노란 리본도 때 타면 다시 붙이면서 해마다 4월이 오면, 라일락이 피면, 해사하게 부풀어 오르는 고운 봄이 오면 생각하려고요. 그냥 생각하고 싶어요. 모두 말로 할 순 없지만…….

[고병권의 비마이너]

여기 사람이 있다



고병권

맑스, 니체, 스피노자 등의 철학,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책을 써왔으며, 인간학을 둘러싼 전투의 최전선인 노들장애학공리소에서 자리를 잡고 공부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의 한계, 자본의 한계, 인간의 한계에 대한 공부를 오랫동안 할 생각이다.

‘여기 사람이 있다.’ 이 말은 십 년 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참혹한 사건의 고유명이 되었다. 용산참사. 이 네 글자를 보거나 들으면 내게는 자동으로 한 남자가 떠오른다. 그는 불타는 망루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다 펄쩍 펄쩍 뛰었고, 다시 난간을 손바닥으로 치다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는 주저앉았다. 이제껏 나는 그렇게 슬픈 몸짓을 본 적이 없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본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시민도 아니고, 식당 주인도 아니고, 철거민도 아니고, 시위대도 아닌, 맨손, 맨얼굴 같은 ‘맨사람’ 말이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사람에게는 ‘사람’이라는 원초적 사실 하나만 남는다. 아무런 울타리나 보호막이 없을 때, 소위 인권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은 맨사람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망루에서 타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망루에 올랐던 사람들은 불이 나기 전부터 거의 맨사람이었다. 이들은 서울에 뉴타운 광풍이 몰아치고

용산역 주변의 대규모 개발이 시작되면서 길바닥에 나앉은 사람들이다. 그 전에는 맨사람이 아니라 이를테면 호프집 사장님이었지만, 수억 원에 이르는 인테리어비용과 권리금을 날리고 소액의 보상금과 퇴거통지서 하나만을 쥔 순간부터, 겨울날 훔옷만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 건물주와 계약을 맺은 용역 강패들이 수시로 생명을 위협하고 물건을 부수고 불을 질러댔다. 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과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관은 상황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국가의 보호막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 이제 맨사람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철거민도, 용역 강패도 알았다.

망루는 이 훔옷의 시민들이 국가와 동료 시민들에게 마지막 구난 신호를 발신한 곳이다. 용역의 폭력에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국가에 중재와 보호를 요청한 지 딱 25시간. 협상도 없었고 문의도 없었다. 망루에 쏟아진 것은 중재와 보호가 아니라 경찰특공대였다. 이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 세입자로서 건물주와 다툼을 벌일 때만 해도, 심지어 용역 강패들에게 필사적으로 돌맹이와 화

염병을 집어던질 때만 해도, 존재를 감싸는 한 겹의 옷은 입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을 농성하는 시민이 아닌 도심 테러리스트로 규정할 순간 그 한 겹의 옷도 벗겨졌다.

테러리즘이란 가공할 폭력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를 장악하려는 이념이다. 요즘은 알카에다나 이슬람국가(IS) 같은 무장단체들이 추종하는 이념이지만, 테러리즘은 집권자가 대중에게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랑스 혁명 때 로베스 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대표적인 예다. 그는 반대자들을 마구잡이로 처단하면서 공포를 통해 복종을 끌어냈다.

실제로도 테러리즘은 국가가 자행할 때 가장 무섭다. 국가는 무력만큼이나 정당성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폭력은 공권력이며 폭력의 행사는 법 집행의 형식을 취한다. 살상에 대한 책임을 떠안는 것은 그것을 당한 쪽이다. 폭력에서 살아남은 자가 살아남지 못한 동료들 죽인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국가 테러리즘은 보호자가 공격자로 돌변하는 것이므로 더 끔찍하다. 시민들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폭력에 노출된다. 한마디로 테러를 당했다고 신고할 데가 없는 것이다. 나를 보호할 때는 등직하지만 나를 공격할 때는 이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남일당 건물 옥상에 있던 사람들이 테러리스트였던가. 그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사회를 장악하려 했던 사람들인가. 철거를 둘러싼 다툼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그들이 망루의 저격병이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다. 굳이 말하자면 그들은 죽이려고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라 살기 위해 올라간 사람들이었다. 그런데도 대테러부대를 투입했다. 이것은 테러의 진압이 아니라 테러의 과시였음이 명백하다.

실제로 나는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국가 테러리즘을 기도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 대중에게 공포를 심어주어 복종을 끌어내는 것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2009년은 2008년의 반동이었다. 광우병 시위로 대중에 대한 공포에 시달렸던 정부가 대중에 대한 공포를 대중의 공포로 바꾸기 위해 일종의 무력시위를 한 셈이다. 그러려면 대중의 일부가 시민이 아닌 테러리스트가 되어주어야 했을 것이다. 2009년 1월에는 용산의 철거민들이, 8월에는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이 희생양이었다.

‘여기 사람이 있다.’ 사람을 목격한 사람, 사람이 타 죽어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그렇게 외쳤다. 국가가 자행한 폭력 속에서 사람이라는 원초적 사실로 돌아가 버린 사람. 언젠가 중국 작가 루쉰도 사람으로 돌아간 사람에 대해 쓴 적이 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하느님, 하느님, 어찌 저를 버리셨나이까. 루쉰은 여기서 사람을 보았다. “하느님은 그를 버렸고, 결국에 그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조차 못 박아 죽였다.”

루쉰은 이 글의 제목을 「복수」라고 달았다. 그 이유는 피살자가 살인자에게 남긴 피비린내 때문이다. 루쉰은 ‘신의 아들’을 죽인 것보다 훨씬 지독한 피비린내가 ‘사람의 아들’을 죽인 자들에게 남는다고 했다. 그래서인가. 십 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에서는 사람 탄 냄새가 난다. 그렇게 독한 냄새를 풍기면서도 정작 살인자 본인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 이 글은 경향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그들은 죽인 것은 작동하지 않은 스프링클러가 아니다

종로 고시원 화재 사망 사건,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 문제

정성철

다른 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자기소개는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
빈곤사회연대에서 빈빈곤운동을 하고 있다.

2018년 11월 9일 새벽, 청계천 수표교 인근 국일고시원에 화재가 발생했다. 단열기구 사용과 스프링클러 미설치가 원인으로 지목된 화재는 18명의 사상자를 낳았고 그중 7명의 삶을 앗아갔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화재로 갈 곳 없어진 이들에게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다른 고시원 방을 얻을 수 있는 1개월 치 주거비를 지원하고 '국토부 긴급주거지원'을 통해 6개월간 임시주거 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거주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로 죽음을 목도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공간으로 들어가라고

떠미는 정부의 대책은 한국 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 현실을 보여줬다.

고시원을 생각하면 대개 대학생이나 고시생들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고시원은 더 이상 공부하는 사람들이 잠시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다. 보증금 마련이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 단기 또는 장기간 머무르는 거처 중 하나다. 화재가 난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 역시 대부분 40~70대 생계형 일용직노동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였다고 한다. 2018 한국도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주택 아닌 쪽방·고시원·숙박업소 등에서 생활하는 가구는 37만에 달한다. 이중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가구는 15만이 넘으며 97%가 1인 가구다.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은 평균 30.2%이며, 수도권에 위치한 고시원의 평균 월세는 33만 4000원이다. 고시원을 포함한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07년 쪽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



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2010년 정책 대상에 고시원 및 여인숙 거주자를 포함하는 '주거취약계층' 용어가 공식화되었다. 그리고 2011년부터 홀리스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은 쪽방·고시원·숙박업소 등 비주택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저렴한 보증금 50만원에 시세의 약 30% 월세로 입주 가능하다.

하지만 공급량이 너무 적다. 200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공급된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은 6700호에 불과하다. 공급량이 1년에 고작 600~700호 수준인 것이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37만이라는 현실에 비해 턱무니없이 부족하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가구 중 공공주택 입주 의사가

있는 가구는 60.7%에 달하지만 주거복지를 이용해본 가구는 5.7%에 불과했다. '정보를 몰라서', '신청방법·절차를 몰라서',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와 같은 이유로 신청조차 못 해본 가구가 80%다.

더불어 공급되는 주택 대부분이 외곽에 위치해 있는 문제가 있다. 자신의 생활권역이나 원하는 지역에 입주하기란 모래사장에서 진주알 찾기만큼 어렵다. 이번 화재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6개월 임시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의 위치 역시 외곽이었다. 종로인근 인력소 등에서 하루별이 삶을 살아 온 대다수의 화재 피해자들에게 임시로 머물기 위해 집기를 구입하여 외곽 임대주택에 입주하라는 것은 안전한 집 잠깐 내출 테니 내일의 일상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절반 이상의 화재 피해자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가길 거부한 이유다.

**작동하지 않은 스프링클러,
사망 원인 중 하나일 순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

화재 원인 중 하나가 단열기구일 수 있지만 전부일 수는 없다. 고시원의 경우 중앙난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 않는 고시원도 있을 뿐더러 한다고 해도 추위가 가시는 온도에 맞춰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떻게 단열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단 말인가. 스프링클러가 사망 원인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 화재로 사망한 사람들은 4만원 더 저렴한 창문 없는 방에 거주한 사람들이었다. 고시원 화재는 예견된 재난이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거주지에서 인명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가. 고시원·쪽방·숙박업소 등 거처를 거주공간으로 인정하면서도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에 대해 제대로 고민하지 않아 온 정부와 지자체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닐까.

국도교통부는 지난 10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으로 '고시원 매입 공공 리모델링 시범사업'과 '쪽방촌 인근 매입임대 활용 단체 이주지원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지만 세부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물량이 절대 부족한 임대주택을 쪽방 인근에 마련한다는 것은 맞는 방향이지만 쪽방·고시원 등 거처에 대한 대책과는 분리되어야 한다. 고시원·쪽방 등에서의 삶이 재난에서 안전할 수 있게 하는 안전설비와 함께 비주택 거처에 대한 별도의 주거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주택 면적, 방 개수, 채광 등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다. 하지만 최저주거기준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에는 현실적 적용이 어렵다. 그렇다고 고시원 등 비주택 거처에 대한 주거기준을 세우지 못할 이유는 없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의 경우 한국의 고시원과 비슷한 비주택 거처에 별도의 주거기

준을 적용하고 있다.

고시원·쪽방 등 거처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는 계속 있어왔다. 그때마다 가난한 사람들의 거주공간에 대한 문제도 계속 제기되어왔다. 2017년에만 해도 1월 중로 쪽방 지역 화재로 1명이 사망, 같은 달 숙박업소 방화에 의한 화재로 8명이 사망했다. 더 이상 가난이 재난으로, 죽음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죽음 이후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지원되는 땀질식 처방으로는 이 문제를 멈출 수 없다. 고시원·쪽방 등 거처를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인정하고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사람이 살고 있음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비주택 거처에 안전과 더불어 주거기준을 마련하는 주거권 대책이 시급하다.

[장판 핫이슈]

말로는 폐지, 하지만 실상은 가짜 폐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 사다리를 매단 가을 겨울 장애인 투쟁

박철균

2015년 4월부터 지금까지 전장연에서 주욱 활동해 왔습니다. 역사와 여행을 좋아하고, 2018년 10월 안식월 때 일본 열도 전국을 여행한 것이 일생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나를 위한 여행 같은 삶을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2017년 8월은 장애인운동에 있어서 가장 벅찬 해일 것이다. 5년을 넘어가던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정책(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광화문 농성장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관계자 최초로 농성장에 방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3대 적폐 정책으로 희생된 18명의 영정 앞에서 묵념하고, 3대 적폐 정책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그 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5년 동안의 농성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고 좋아했다. 그렇게 3대 적폐 정책은 폐지되고 장애인도 가난한 사람들도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 줄 알았다.

그 후로 1년이 지났고, 장애인의 삶은 얼마나 변했을까? 안타깝게도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거의 없었고, 장애인은 2018년에도 내내 농성 투쟁을 진행했다. 봄여름에는 청와대 앞 종로복지관에서, 가을에는 국회가 보이는 이룸센터 앞에서, 겨울엔 국회, 광화문 곳곳에서 장애인운동 활동가 수십명이 청와대까지 기어가 기 투쟁 혹은 사다리를 거는 투쟁을 했다. 그리고 장애인



부모운동 활동가 수백명은 삭발 및 삼보일배 투쟁을 진행했다. 왜 광화문 농성 때와 다른 것 없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을까? 왜 광화문 농성 이후로도 장애인의 투쟁은 계속되는 것일까?

(단위: 백만원)

사업명	'18년 (본예산)	'19년					증감 내역	요구 내역
		정부안 (A)	증감 (B)	국회확정 (C=A+B)	장애등급제 폐지 증액 요구예산(D)	부족예산 (D-B)		
총계			50,335		915,413	865,078	5.5% 증액 반영	94.5% 비반영
◇ 보건복지부			42,585		825,291	782,706		
장애인 활동지원	690,674	968,477	34,984	1,003,461	511,481	476,4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 증가(7만 8000명→8만 1000명) 최종증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인상(680→1,29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 증가(7만 8000명→10만 명) 평균이용시간 확대(109.8시간→130시간) 활동지원 수가 증액(12,960원→14,150원)
장애인 연금	600,877	719,735	0	719,735	254,934	254,9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확대 (1.2, 중복3급 →1.2,3급) 수급자 (36만4천명→64만2천명)
발달장애 인 지원		11,462	7,600	19,062	40,630	33,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1,500명+1,000명=2,5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사 확대 (1,500명→5,000명) 월평균제공시간 확대(88시간→120시간/성인기준)
중증장애 인 자립생활 지원	3,803	4,291	1	4,391	2,109	2,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2개소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비 증액(62백만원→80백만원) 개소수 증가(69개소→80개소)
대구시립 희망원 시범사업	0	0	0	0	2,983	2,9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 대구시립희망원 해결 시범사업
장애인 탈시설 지원	0	0	0	0	7,100	7,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주거제공, 자립지원금 지원
뇌병변 장애인 지원	0	0	0	0	1,650	1,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재활훈련센터, 통증관리 및 수술비 지원 예산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아무런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저항을 시작했다. 추석을 맞이하여 서울역에서 일주일가량 농성을 했다. 귀성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또 추석맞이 인사를 하러 오는 정부 관계자와 정당 대표들을 만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농성장을 차리고, 현수막을 거는 동안 서울역 관계자들이 폭력적으로 저지하여 충돌이 있었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았다.

추석 농성 후, 10월 중순부터 우리는 국회를 중심으로 한 투쟁에 들어갔다.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국회에서 예결산이 심의되고 통과되는 날까지 집중 투쟁을 전개했다. 각 활동가들이 서로의 임무를 가지고 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필사의 활동을 펼쳤다. 어떤 분들은 국회 예결산위 등 각종 국회 상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의원과 각 정당 대표를 만나 우리의 요구안을 이야기하고 국회 예결산에 반영될 것을 촉구했고, 어떤 분들은 국회 입구, 광화문 앞, 심지어는 국회의원 회관 바로 앞까지 들어가 사다리를 목에 걸고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를 몸으로 절규하며 외쳤다. 장애인 부모 및 가족들은 국회 본관 앞에서 대형 현수막을 치며 청와대에서 약속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의 생존을 위한 절규가 온 사방에 외침에도 국가의 예산을 책임져야 할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은 그 얘기를 외면하는 듯했다. 집권여당의 대표는 사다리를 걸고 면담을 요구했던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을 끝내 만나지 않았고, 국회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쟁을 하느라 시간을 소모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막판 야합 끝에 12월 1일 "세계장애인의 날", 다음 표와 같이 누더기가 되어 2019년 장애인생존권 예산이 통과됐다. 정부의 예

2017년 12월,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얘기하며 장애등급제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얘기했다. 그러나 이것은 31년 만에 대대적으로 변화될 장애인정책을 향한 기대와 1842일 동안 광화문 지하차도에서의 외침, 그리고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에서 장애계가 제기해 온 내용에 전혀 미치지 못한 계획이다.

턱없이 적은 예산을 늘리지는 않고, 예산에 맞추어 장애유형과 개인에 맞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 현 정부의 2019년 계획이다. 이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해 각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96점의 점수제로 변경되어 장애유형을 나눠서 장애유형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적과 적이 싸우는 와중에 이득을 취하려 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수법으로, 점수표 안에 장애인을 가두고 장애인 유형별 갈등을 통해 장애인을 관리·통제하려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 운동은 강력하게 항의했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및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탈시설 정책, 개인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저상버스 보급 확대, 노동권, 문화·체육권 등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함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실행을 해달라고 각 정부 부처에 요구했다. 그러나 어느 정부 부처든 "참 좋은 제안이신데, 예산 때문에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문재인 정부는 돈을 핑계 삼았고, 이는 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실질적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의 태도는 추석 즈음 발표한 예산안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장애인계가 요구한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책정했고, 탈시설 지원 및 대구시립희망원 탈시설 시범사업은 우리가 요구한 내용을

(단위: 백만원)

사업명	'18년 (본예산)	'19년					증감 내역	요구 내역
		정부안 (A)	증감 (B)	국회확정 (C=A+B)	장애등급제 폐지 증액 요구예산(D)	부족예산 (D-B)		
장애등급제 심사제도 서비스 연계지원	0	0	0	0	4,404	4,404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 전달체계 인력 필요
◇ 국토교통부			5,550		76,518	70,968		
저상버스 보급확대	34,000	34,000	3,550	37,550	74,760	71,210	• 저상버스 100대 확대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 목표지 반영
특별교통수단 도입	3,000	2,700	2,000	4,700	1,400	+600	• 특별교통수단 100대 확대	• 법정기준 대수 미달 59개 시군 지원 예산 반영
교통약자 장애인 이동지원		1,342	0	1,342	358	358		•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시범사업
◇ 고용노동부			600		6,304	5,704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0	725	600	1,325	4,054	3,454	• 동료지원가 (100명→200명)	• 동료지원가 기본급 인상 (10만원→20만원)
장애인인식 개선지원	2,648	3,122	0	3,122	2,250	2,250		• 강사 지원단가 인상 (10만원→20만원)
◇ 문화체육 관광부			1,000		5,000	4,000		
함께 누리지원	6,580	7,721	1,000	8,721	5,000	4,000		
◇ 교육부			600		2,300	1,700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지원	1,314	2,932	600	3,522	2,300	1,700	• 장애인평생교육 기관 지원 확대 (11개소→17개소) • 운영비 증액 (1억→3억)	•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확대 (11개소→17개소)

2019년 장애인생존권 예산 결과 (정부안 대비 국회 증감액 중심/ 2018. 12. 17)

산안에서 아주 조금만 증액된 예산안, 장애인 요구안의 94.5%가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이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물론이며, 탈시설-자립생활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애인은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줬다.

2019년 세계장애인의 날은 그래서 굵은 날씨만큼이나 더 분통터지는 날이었다. 장애인 부모님 3명은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가 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이야기하다 연행되기도 했으며, 경찰은 사거리를 막고 목소리 외치는 장애인 운동 활동가를 향해 연행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한 사거리의 장애인을 들어내기 위해 온갖 폭력적인 진압을 가하려고 했다. 현 정부에서도 장애인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존을 이야기하고 있고, 경찰의 온갖 비인권적인 망언과 진압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슬펐다.

촛불을 등에 업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의 계속되는 촛불에 대한 배신으로 점점 지지율을 잃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친기업적인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하며, 촛불을 든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약속 이행 및 정책 실행은 아득하게 보인다. 그렇기에 장애인운동은 더 열심히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만나 우리의 생존권 예산 및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이야기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 치열한 봄을 준비할 것이다.

함께 합시다! 우리의 길은 언제나 쉬운 투쟁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투쟁으로 세상은 보다 사람을 향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차별의 벽, 아픔의 벽을 함께 넘는 노력

코레일 차별규정 현장 실측 및 진정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김호세아

잘못은 반성하고, 사과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뻔뻔함보다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기 위해 더 노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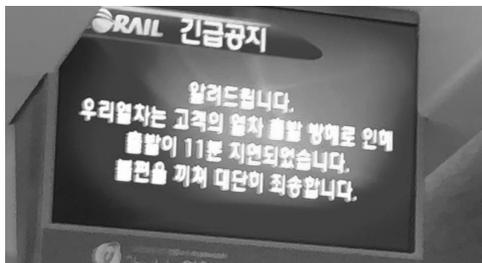


2018년 12월 13일. 교장쌤은 황당한 일을 겪었죠. 15분 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며 창원중앙행 KTX 탑승을 코레일측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교장쌤은 나름의 투지(?)를 발휘하여 실랑이 끝에 창원중앙행 KTX에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에 도착할 때까지 열차 안에서는 '고객의 출발 방해로 출발이 지연되었다'는 망신주기 문구가 계속 게시되었습니다. 이 일을 듣고 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리

보기에는 그렇습니다)으로 마련한 법입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최소한의 기준도 아닌, '내가 오랄 때 안 오면 안 태워준다'라는 식으로 그동안 장애인 이용자들을 기만했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KTX 이용을 위해 자신의 관용차를 플랫폼까지 갖고 간 게 생각이 납니다. 정부의 고위 관리에게는 납작 엎드리면서, 장애인들에게는 규정을 이유로 갑질을 해온 겁니다.

노들의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코레일의 교통약자도우미서비스 규정은 장애인 차별 규정임을 밝히는 '코레일 차별규정 현장 실측 및 진정 기자회견'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전 기자회견 전에 기자들에게 배포될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다른 교사분들은 현장 기자회견 준비를 했죠. 기자회견은 나름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분석한 기사들이 나왔고, 사진도 몇몇 매체에 보도되었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아마 이런 활동을 전부터 계속 해왔을 테죠. 예전부터 이동권 투쟁이 계속 있었기 때



프트 이용에는 2분도 걸리지 않는데 15분까지 오라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법에서 최소한의 기준(제가

문에 그 연장선상일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투쟁에서 역할을 맡아봤습니다. 생업이 있는 저로서는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보도자료 작성을 하게 되었죠. 한 사람의 차별이 촉발요인이 되었지만, 저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규정으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었던 이동권의 문제에 있어서 미약하게나마 참여할 수 있었던 것에 영광스러운 기분까지 느꼈다면 너무 거짓말처럼 느껴질까요?? 어머니께서 해오셨던 수많은 투쟁의 자리를 그냥 인터넷 기사로만 봐왔던 제게는 멀게만 느껴진 곳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랐었다고나 할까요?

어머니를 차츰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머니가 그동안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 보니, 뭔가 큰일을 하지 않아도 힘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집회에 가더라도 저는 목소리를 내거나 뭔가를 외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세상을 향해 불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지지가 돼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자리라면, 시간이 된다면, 시간을 내어서 참여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 제게 KTX와 싸울 수 있는 역할이 주어졌으니 당연히 제게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죠. 물론 성탄절을 보도자료를 쓰느라 모두 보내긴 했지만, 예수님도 좋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투쟁은 선봉에 서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뒤로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것이기도 하지요. 자리에 함께 있음이, 국민청원에 청원 버튼을 누르는 손길이. 이 모든 연대의 손길과 태도 하나하나가 세상에 큰 울림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 멍멍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앞에서 나설 만한 위인은 안된다고 제 자신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아픔과 차별에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손길로써의 저는 다른 분들만큼 열심히 있습니다.

차별의 벽, 아픔의 벽은 언제나 높습니다. 하지만 연대의 벽을 쌓아 언젠가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제 제가 죽고 난 다음이라도 말이죠. 그 순간까지 그것을 기억하며 열심히 연대의 벽을 쌓겠습니다.

노들과 나의 인연

강윤중

경향신문 사진기자. 무려 20년차다. 2002년 '장애인이동권'으로 생애 첫 사진다큐를 한 뒤 기자로서 나아갈 방향을 새겼다. "나의 카메라는 이 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이들의 삶을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긴 경력에 비해 두드러진 성취는 없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노들야학을 찾았던 지난해 11월9일, 1,2교시 수학수업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학생들이 교실 문을 나섰다. 이미 승강기 앞에 휠체어들이 도열했다. 수업이 끝나자 학생과 활동지원사, 교사들이 일제히 마로니에 공원으로 향했다. 이날은 김명학씨의 '60번째 생일잔치'가 열리는 날. 그는 노들야학 25년 역사의 산증인이다. 노들을 취재하게 된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25년'이라는 시간이기도 했다. 잔치에 참석한 이들의 모습을 보며 모두가 '명학이 형'이라 부르는 생일 주인공의 존재감을 짐작했다. 휠체어에 앉은 김명학씨는 고개를 쓴 채 감회에 젖었다. 만감이 교차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다.

그 눈빛을 바라보다 2007년 노들야학의 추억 속으로 빨려들었다. 당시 야학은 구의동 정립회관 내에 있었다. 회관 측은 업무공간이 부족하다며 연말까지 나가줄 것을 요청한 상태였다. 거꾸로 달린 시간이 가장 멈춘 장면은 어느 술자리였다. "쫓옥~쫓~옥" 환청과 함께 소환되는 추억이다. 학생과 교사들이 어울려 술을 마시던 날이었다. 나도 그 자리에 끼었다. 정립회관에서 지하철역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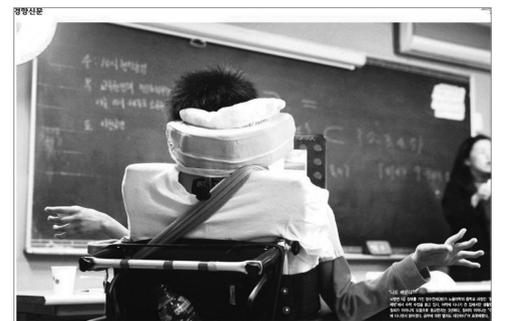
지 향하는 길에 호프 등 술집이 즐비했지만, 10cm도 안 되는 문턱이 휠체어를 탄 학생들에게는 그저 높은 벽이었다. 술을 마실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은 지하철역 입구의 한 포장마차. 턱이 없는 곳이었다. 노들 식구들은 단골이었다. 포장마차 사장님이 종이컵과 빨대를 테이블 위에 빠르게 세팅했다. 손이 자유롭지 못한 학생들이 종이컵에 가득 채워진 소주를 빨대로 빨았다. "쫓옥~쫓~옥." 그 청량하고 손에 잡힐 듯 구체적인 소리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입을 벌린 채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웠던 기억이다. 혹시 그때 그 자리에 '명학이 형'도 계셨을까.

당시 사진기자협회에서 발간한 '계간 사진기자'에 기고한 글을 들춰보니 이렇게 써놓았다. "...놀라운 광경을 보며 포장마차라는 일상의 공간에서 장애인들을 본 적이 있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장애성인에게는 술 한 잔의 자유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사회구나. 차별반대, 평등이란 게 고상하고 큰 무엇보다 장애인들도 향유하고 즐기고 싶은 사소한 일상과 공간의 회복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2018년. 오랜만에 노들야학 취재를 시작하며 '그때 만났던 얼굴들이 있을까' 궁금했다. 김유미 교사에게 경향신문(2007년11월26일자)에 게재됐던 다큐 기사를 찍은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신문사진에 등장한 인물 중 두 명은 여전히 야학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11년 전 기억이 생생한데 시간은 잘라낸 것처럼 그렇게 흘렀다.

야학을 두 번째 간 날, 정수연씨를 만났다. 몸을 고정시킨 커다란 휠체어 옆에는 그때처럼 그의 어머니가 있었다. 이번엔 아버지도 함께였다. 수연씨는 2007년 신문에 실린 사진 중 메인 사진 속의 주인공이다. 수업 중 칠판을 바라보고 있는 수연씨의 뒷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배움에 대한 간절함이 읽혀 선택됐던 사진이다. 20대 후반이던 수연씨는 이제 마흔이다. 어머니를 보자 반가운 마음에 "저 기억하세요?"하고 대뜸 물었다. 기억이 없으신 듯 했다. 뭐, 1년 전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일이니. "수연씨 저 예전에 정립회관에서 사진 찍던 경향신문 기잡니다. 기억하세요?" 고맙게도 그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잘 알아듣진 못해도 외마디 말과 함께 지은 환한 표정이 "그렇다"고 답하고 있었다.

또 한 명의 인연, 이영애씨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돼서야 만날 수 있었다. 이제 50대가 된 그의 얼굴에 세월이 내렸다. 하키야 나도 그새 40 중반이 되었으니. 당시 인터뷰 중 "35년 동안 집에만 있다 2002년 노들야학에 들어와 처음 한글을 배웠다"는 말을 또렷이 기억한다. 그러니까 17번째 야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다. 나를 기억했다. "오래 다니신다"며 안부를 묻자 "오래 다녀 좀 지겨워요"라며 특유의 너스레를 떨었다. 수업 중 보이는 열정은 여전했고 누운 채 활짝 웃는 모습은 "배워서 행복해요"라고 반복해 말하고 있었다. 더없이 맑은 그의 웃음이 다시 2007년 어느 날의 추억을 소환했다.



제발, 우리 '볼넷'을 끄지마세요.

장애성인 교육 '노들야학' 거지로 몰려갈 위기

"한글 배우고 책읽을 재기할 곳'이었는데..." 눈물
 "35년 동안 집에만 있던 2002년 노들야학에 들어와 처음 한글을 배웠다"는 말을 또렷이 기억한다. 그러니까 17번째 야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다. 나를 기억했다. "오래 다니신다"며 안부를 묻자 "오래 다녀 좀 지겨워요"라며 특유의 너스레를 떨었다. 수업 중 보이는 열정은 여전했고 누운 채 활짝 웃는 모습은 "배워서 행복해요"라고 반복해 말하고 있었다. 더없이 맑은 그의 웃음이 다시 2007년 어느 날의 추억을 소환했다.

장애성인 교육 '노들야학' 거지로 몰려갈 위기

노들야학은 장애인 교육의 선봉선이다. 2002년 '장애인이동권'을 쟁취한 이후, 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는 10여명의 장애성인들이 야학에 다니고 있다. 야학은 장애인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는 10여명의 장애성인들이 야학에 다니고 있다.

수업 중 내린 이른 눈은 그칠 줄 몰랐다. 수업이 끝나자 눈발은 더 굵어졌다. 다리와 손을 쓸 수 있는 학생과 교사들이 쌓인 눈 위에 발자국을 찍어보다가 어느새 눈싸움이 벌어졌다. 눈을 밟지도 눈을 뭉쳐보지도 못하는 영애씨는 내리는 눈과 눈앞의 '작은 전쟁'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어냈다. 그때의 표정을 취재기에는 이렇게 남겼다. "...맘껏 팔 벌려 눈을 맞고, 눈 위를 뛰고, 구르고, 두 손 가득 눈을 모아 눈사람이라도 만드는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을까..." 현재와 과거를 잇고 있는 이영애씨의 빛나는 미소는 결국 경향신문 포토다큐(2018년 11월17일자)의 메인 사진으로 기록됐다.



노들과 나의 인연은 2007년부터 11년의 세월을 함께 건너고 있다. 어쩌면 그 인연은 세월을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다. 2002년부터 시작한 경향신문의 기획지면 '포토다큐'의 내 첫 기사가 '장애인이동권'(2002년)이었다. 당시 박경석 교장선생님의 활약을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있다. 그때 다큐 취재를 하며 나를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래도 좀 '안다'고 '이해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장애인에 대한 나의 무지와 편견을 알게 됐다. 이후 '안다는 것'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내가 카메라를 들고 사람을 만나고 현장을 찾을 때의 자세여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곤 했다.



"느리지만 함께 걸은 25년, 노들야학은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 다큐기사의 마지막 문장이다. 다시 10년 뒤의 노들을 상상해본다. 그 세월만큼 바뀐 세상을 설레며 기다릴 것이다. '명학이 형'의 칠순잔치에서 이영애씨와 정수연씨를 만나 "저 기억하세요?"라고 묻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본다.

[형님 한 말씀]

「2019년을 맞으며...」

김명학; 노들 야학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노들 야학을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정마다 복과 행운과 건강이 깃들시길 바랍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노들 야학을 격려와 애정으로 지켜보아 주신 여러분.. 2019년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애정으로 지켜봐 주세요. 노들야학은 여러분들의 격려와 애정 속에서 투쟁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들야학의 일상 속에서 투쟁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투쟁들을 함에도 우리 사회는 많은 투쟁과 동성장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새해에는 이런 투쟁하는 동성장과 사람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장에서 투쟁현장에서 투쟁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 그들도 당당하게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써 살아갔음 좋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들은 그리 큰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점점 당당하게 자신들의 권리가 있고, 당당하게 그 권리에 합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당연한 것들을 거부하는 그리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그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들을 외치는 사람들은 그 어느 집에서나 가깝고 귀하고 소중한 가족일 겁니다.

그런 이런 사람들을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사람을 함부로 해고 시키고, 권력이 있다고 해고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온갖 나쁜 것들을 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사회에는
 있습니다. 새해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없었음 좋겠습니다. 새해는
 진심으로 지난 해보다 더 나은 새해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
 없고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회에서 배
 제 되는 사람들이 좀 더 새해엔 절망이 아닌 희망이란 걸 가지고
 생각과 몸으로 느끼는 새해가 됐음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는 것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힘들고 갈 길이 멀지만
 우리들 함께 힘 모아 투쟁하면서 작년보다 좀 더 나은 새해로
 나갔음 좋겠습니다. 노들야학을 격려와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
 는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짓으시고 가정마다
 행운과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노들야 안녕]

노들공장 적응기

서민정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8월에 노란들판 사무팀
 원으로 입사한 서민정입니다. 입사 소감을 쓰기에 앞서
 뜬금없는 자기 고백을 하자면... 저는 참 글을 쓰는 일
 에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살면서 가장 상을
 많이 받는 시기인 유치원생, 초등학생 시절에도 글짓기
 관련으로는 상은커녕 칭찬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
 아요. 이런 뜬금없는 고백을 입사 소감 시작부터 주절
 거리는 이유는 이 글을 호기심에 읽기 시작한 어느 누군
 가가 부디... 앞선 글쓰기 능력자들의 소감문과 같은 재
 미난 글을 기대하셨다가 실망하시고 덮지 않으시기를...
 조금 더 힘내어 읽어주시기를 하는 마음에 부족한 제
 글짓기 실력부터 이실직고 하고 소감문을 시작합니다.

서울에서도 쓰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낭창하
 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전에는 [“성
 격 따위가 밝고 명랑하여 구김살이 없다”의 어근]이라
 고 설명하고 있구요. 제 고향 대구에서는 해맑은 것 같
 으면서도 한 번씩 멍청한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에게
 “자 와저래 낭창하노.”라고 표현하며 사용하기도 해요.

“낭창하다”라는 말을 이리 길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
 유는 고등학생 서민정의 별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랬
 던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원이 되어 일하고,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낭창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인지도 조금씩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구도의 조직에서 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
 도 어린 시절보다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더 긴장해야
 하고 동료의 성정에 마냥 축하만 하기에는 내 뒤쳐짐을
 못 본 척하는 것 같은 마음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직장 생활이니까요.

그런데 요즘 노란들판에 온 뒤로 한동안 잠잠했던 제
 속의 “낭창이”들이 좀 자주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
 말 대잔치 헛소리에도 웃어주고, 새로운 환경에 힘든 것
 은 없는지 조용히 주변에서 챙겨주는 노란들판 사람들
 덕분에 아무래도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인 거 같아요.

노란들판의 가장 큰 장점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그냥 받아준다는 점인 것 같아요. 업무의 양이나 내용
 으로 평가되는 “직원”보다는 함께 일하는 “동료”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노란들판처럼 모든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
 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의 여유를 노란들판에
 서 많이 배우며 지내도록 할게요!

새로운 환경에 힘든 것은 없는지
 조용히 주변에서 챙겨주는
 노란들판 사람들 덕분에 아무래도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인 거 같아요

[노들아 안녕]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 현장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김유진

안녕하세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주택팀 신입활동가 김유진입니다. 저는 2005년 활동보조인으로 시작해 다섯 명의 이용인분들과 직접적으로 만났으며 활동보조 하면서 장판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당사자운동 그리고 인권이라는 부분에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활동보조 일을 하며 알게 된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6년간 활동하였고 초기에 함께 활동했던 활동가들이 대다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서 인연 맺어왔던 중랑센터를 퇴사하고 노들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입사한 지 7개월이 되어 가네요.

처음 장판과 인연을 맺을 때만 해도 솔직히 장애인 은 안쓰럽고, 불쌍해서 이왕이면 돈도 벌고 보람된 일을 하자라는 생각에 시혜와 동정적인 마음으로 활동보조인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활동보조를 했던 이용자 분이 노들야학 학생이자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로 활동하시던 분이셨는데 주로 집회 현장과 동료상담 교육, 자립생활교육에 참여하셨고 저는 그분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여러 교육에 다녔지만 그당시에는 교육만으로 저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의 변화를 가지게 된 것은 집회 현장에서

역압받는 당사자가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집회 현장에 활동보조하러 갔었는데, 이용자분이 먼저 관공서에 들어가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저의 업무가 장애인의 일상을 돕는 것이었기에 경찰과 공무원을 뚫고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눈에 보인 것은, 이용자분이 여성 장애인이었었는데 여섯 명의 남성 공무원이 달라붙어서 휠체어를 끌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힘으로 끌어내는 모습에 휠체어 망가진다고, 들던지 수동 전환해야 한다며 항의 한마디 했다가 네 명의 남성에게 강제로 들러 나오게 되면서 들었던 “업무방해니까 끌어내”라는 이 한마디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도 일하는 거였는데, 관공서 점거도 아니었고 앞 주차장에서 선전물 뿌리는 행위를 한 것뿐이었는데 그 행위가 본인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지도 감독 책임 제대로 하라고 민원 넣는 행위가 업무방해였던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방해를 받은 건 나였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침묵만 하고 있어 봐야 그

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으며 들어주지 않더라도 말 한마디 안 하면 억울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날이 저의 방관적인 참여를 접었던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 거부장적, 수직적, 권위적인 한국사회 안에서 소수의 의견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소수의 이야기를 앞장서서 사회에 소통하며,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장애인운동 현장과 조직 문화에 나름의 애정을 가지게 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여년을 되돌아보면 그 당시 변화시킨 활동들이 지금 많이 존재하는 걸 느낍니다^^ (활동지원제도, 지하철역사 엘리베이터, 탈시설지원 정책,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저는 장애인 운동의 현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 현장에 항상 노들이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운동 현장에서 앞장서서 움직이고 있는 노들이라는 단체에 입사하게 되어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들의 현장에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여기서는 함께 살아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정진영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요즘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와 더불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몸짓때에서 활동했고, 지리학과 인류학을 공부합니다.

‘진짜 하나?’ 노들보글 라면맞춤대회가 실제로 열리기 직전까지 나는 이런 의심을 품고 그 과정을 지켜봤다. 너무나 우연한 계기로 시작되었고, 실제 열리는 당일까지 많은 변동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 기억에 따르면, 노들보글 라면맞춤대회는 집에서 라면을 끓였다는 장기 형의 일상적인 말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을 들은 누군가가 수업 중에 라면을 한 번 끓여 먹자고 했고, 그게 노들보글 라면맞춤대회를 개최하자는 결정으로까지 이어졌다. 라면맞춤대회 개최가 결정된 그 날, 나는 집에 가며 야학 수업을 함께 참관하던 친구와 ‘이렇게 사소한 계기로 갑작스럽게 정말 대회가 열릴까?’와 같은 이야기를 나눴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도 나에게서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라면에 새우깡을 넣어 먹곤 한다는 누군가의 말에 재료 중 하나로 새우깡이 등장했다. 가스불이 무섭다는 누군가의 말에 가스버너 대신 라면 포트가 등장했다. 대회 준비 중간에 못 오게 된 학생도 생기고, 새로 등장한 학생도 생겨서 팀의 구성도 계속 바뀌었다. 무

수히 많은 좌충우돌을 겪으며 노들보글 라면맞춤대회는 준비되고 개최되었다.

좌충우돌. 노들보글 라면맞춤대회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나는 좌충우돌하는 그 시간들이 좋았다. 그 좌충우돌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들을 지나쳐버리지 않은 데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계의 입장에서 무의미하고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의 말과 사정들을 ‘좋은 게 좋은 거지.’, ‘개인적인 사정들을 어떻게 다 봐주겠어.’라는 말들로 일단락하지 않은 데서 나온 좌충우돌이었다. 라면을 끓였다는 경험을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넘겨버리지 않고, 불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는 등의 섬세함이 좋았다. 사소하고 섬세하며 소중한 라면맞춤대회였다.

나는 라면맞춤대회를 준비하고 개최하는 좌충우돌의 시간들을 함께하며 노들야학에서 계속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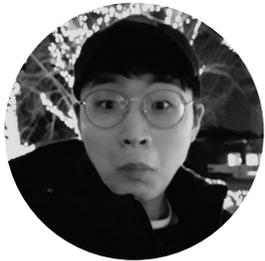
이런 노들의 사소함, 섬세함, 즐거움 같은 것들은 나에게 많은 용기를 주었다. 나는 노들야학에 오기 전에 우울함을 느끼고 있었다. 사는 게 힘들고 화나는 일들이 많은데, 삶을 바쳐서 투쟁할 감정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없이 무기력한 상태였다.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따위의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짧게나마 노들야학의 수업들을 참관하는 시간 동안, 살아가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세상이 사소하게 받아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사소하지 않은 문제들을 같이 고민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 또한 이곳에서는 무력하지만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노들과 함께한 짧은 시간들 동안 나는 노들이 좋아져버렸다. 세상의 입장에서 무의미하고 사소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섬세함이 좋았고, 곳곳의 즐거움이 좋았다. 오랜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여기서는 함께 살아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이 사소하게 받아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사소하지 않은
문제들을 같이 고민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 또한 이곳에서는
무력하지만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노들 신입활동가 교육을 마치고



장준호
노들장애인지원생활센터

안녕하세요 저는 노들센터 자립주택 코디네이터 장준호라고 합니다. 졸업 후 4년 동안 일반 회사에서 일하다가 작년에 노들에 오게 되었습니다. 전부터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것은 써먹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며 우여곡절 끝에 노들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들에 오면서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은 거의 쓰지 못하고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ㅋㅋ

노들에서 일하면서 저의 행동이 동정으로 비추어져 상대방에게 상처, 불쾌감을 주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센터 활동가 쌤들이 편하게 대해 주시고 술도 마시면서 재미있게 지내니 이제는 어색함은 없고 편하고 좋습니다. 센터에 입사하며 다양한 교육을 들었지만 그중 신입 활동가 교육은 제가 노들과 장애해방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장애해방열사배움터에서 배웠던 교육이 가장 기억에 남으며 무엇보다 열사님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현재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장애해방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단합하고 목소리를 낸다면 많은 사람들

이 귀를 기울여 주고 장애 해방에 대해 함께 동참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입 활동가 교육은 아니었지만 작년에 탈시설 상담에 지원했던 일이 의미로 남았습니다. 전에는 시설의 단면만 바라봤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느꼈던 것은 시설은 인권의 가치와 개인의 삶이 무시되어지는 곳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회기를 거듭할수록 탈시설의 장벽에 부딪혔고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어서 자책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탈시설 지원을 적극적으로 임하여 꼭 한 명이라도 시설에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늦깎이 신입 사원을 받아준 노들센터 활동가 쌤들에게 감사드리고 아모르 파티 팀원들이 있어 언제나 든든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단법인 노란들판 로고 '디자인' 이야기

고수진

생각이 깊은 디자인을 꿈꾸며 오늘도 작은 손을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디자이너

오랫동안 사단법인 노란들판의 얼굴이었던 로고 디자인이 새롭게 태어났다. "로고(logo)는 상품이나 상업단체, 즉 회사 등의 조직에 적용되는 시각 디자인(이름을 시각 디자인화한 것)"을 말한다. 로고 디자인 리뉴얼은 2017년 겨울 모꼬지 깃발에 기존 로고 대신 새로운 로고를 넣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사회적기업 노란들판에는 매년 2차례 열리는 노들픽이라는 제도가 있다. 팀 목표와 개인 목표를 정해 수행하고 발표·시상하는 행사다. 모꼬지 깃발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는 2018년 노란들판 노들픽 디자인2팀의 팀 목표가 되었다.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던 2018년 초 동송동 노란들판에서 5인(박경석 교장선생님, 민아영 활동가, 박시백 팀장님, 고수진, 진실로)이 만나 새로운 로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3개의 계절이 지나는 동안 업무 틈틈이 로고 디자인이 진행되었다. 노란들판은 희망의 씨부림과 충실한 가꿈으로 일구어낸

결실들이 넘실대는 풍경을 뜻한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의 터' 사단법인 노란들판의 로고는 그 의미를 시각화하는 작업이었다.

사단법인 노란들판 구성원 투표로 선정된 새로운 로고는 한문 '발 전' 안에 노란들판의 자음 'ㄴ', 'ㄹ', 'ㄷ', 'ㅍ' 네 자가 들어간 형태다. 더불어 일구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나눔의 들판이다. 로고 색상은 기존 로고 컬러를 참고 및 발전시켰다. 형태는 새롭게 하되 기존 로고의 컬러 아이덴티티는 가져가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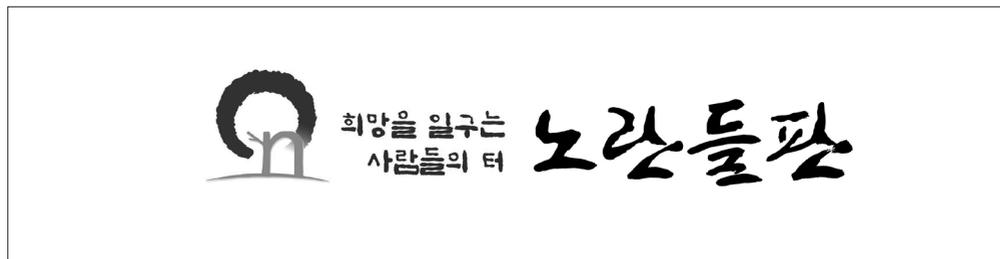
인터넷에 로고 리뉴얼 사례라고만 검색해 보아도 수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다. 로고를 만들고 사용하고 리뉴얼하는 이유는 구성원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소비자에게 사랑받기 위함이다. 오랫동안 사랑받는 로고란 여러 사람의 좋은 경험과 따뜻한 마음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 지는 것이리라. 사단법인 노란들판의 로고 '디자

* <https://ko.wikipedia.org/wiki/%EB%A1%9C%EA%B3%A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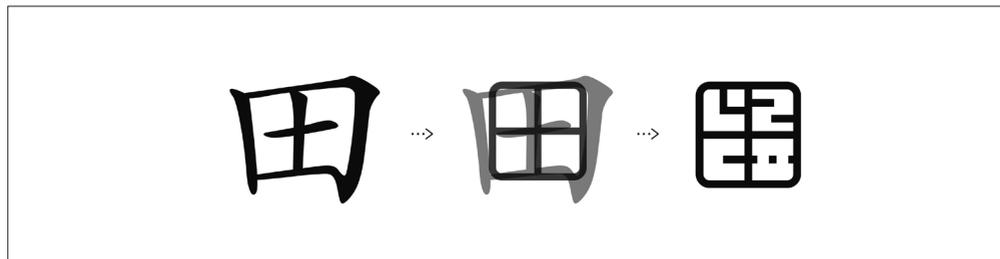
인'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앞으로 노란들판 로고에 더 해질 이야기는 '희망을 일구는' 모두의 것이 될 것이다.

기업 노란들판 최은화 디자이너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경석 교장선생님 맛있는 밥 사주시기로 한 거 잊지 마세요! ^^

덧) 로고 디자인 과정에 아낌없는 의견 주신 사회적



신영복 선생의 신영복체를 로고타이프로 사용한 사단법인 노란들판 기존 로고



한문 '밭 전'이 품고 있는 노란들판의 자음 '나', '려', '드', '포' 네 자 더불어 일구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나눔의 들판을 의미



기존 로고 컬러를 참고 및 발전시킨 사단법인 노란들판의 새 로고

우리가 기록한, 야학의 모날모순!

유지영

오마이뉴스 기자. 많은 것을 좋아하면서 살고 있어요. 잘 웃고 잘 울어요. 장래 희망은 정확하게 듣는 사람.

금요일 저녁 9시, 노들야학의 국어 수업이 끝나고 5명의 국어 교사들이 야학 근처에 있는 포차로 모여들었다. 주5일제라는 마수 아래 다들 무척이나 고단한 일상을 보내고 난 뒤였다. 막 주말이라는 감미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찰나였다.

국어1반을 맡은 천성호 선생님의 손에 종이 한 뭉치가 들려 있었다. '천 쌤'은 포차에 오자마자 모인 교사들 손에 종이를 하나씩 툇 툇 쥐어주었다. 전국야학협의회에서 전국 야학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제1회 야학백일장' 안내 글이었다.

“우리도 국어 시간에
노들 백일장 한 번 해봅시다.”

천 쌤은 비장하게 입을 뗐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모든 것이 속전속결로 정해졌다. 종이를 쥐어주듯 천 쌤은 교사들에게 하나씩 역할을 툇 툇 쥐어주었다. 백일장 기획안, 포스터 디자인, 사회자, 심사위원 등 하나씩 역

할이 정해졌다. 내게 떨어진 역할은 심사위원이었다.

“심사위원! 아, 이거 진짜 엄청난
역할이에요.크하하~”

천 쌤은 노들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법한 특유의 말투로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였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불과 몇 초 전까지 다른 쌤들이 하나씩 백일장 역할을 맡을 때마다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던지라, 양심상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애매한 웃음과 눈썹 굵기로 소심한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별 수 없었다. 그렇게 나는 심사위원이 됐다.

일은 착착 진행됐다. 며칠 뒤 국어4반의 현아 쌤은 백일장 기획안을 써왔다. 국어5반 준호 쌤이 포스터를 제작해 노들야학 전체에 백일장 포스터가 붙었다. 국어3반 은영 쌤은 행사의 사회를 맡았고 '모날모순(모든 날 모든 순간) 백일장'이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지만 야학에 와서 포스터를 붙 때마다 '과연 글을 몇



명이나 쓸까라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다.

총 38편의 보석 같은 글.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우였다. 백일장이 열리기 며칠 전부터 학생들의 글이 그야말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글 중에는 짧은 시도 있었지만 긴 산문도 있었다. '몇 명이나 글을 쓸까'라는 우려 대신 마음속에는 다른 걱정이 들어섰다. '과연 이 글들을 제 시간 안에 읽어볼 수나 있을까'라는 걱정이었다. 결국 12월 21일 백일장 공모가 끝나기 직전, 교사와 학생 응모자를 포함해 총 38편의 글이 들어왔다.

글을 쓰지 못하는 학생은 말로 대신 읊었고 다른 학생이나 교사가 이를 받아 써주었다. 글을 쓸 줄 아는 학생은 한 자 한 자 직접 글을 썼다. 그렇게 완성된 글이 38편이었다. 좀 촌스러운 비유긴 하지만, 한 편 한 편이 정말 보석 같았다. 심사를 하기 위해 38장의 종이를 들

었다. 목직했다. 여기서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3편까지 딱 6편을 골라야 했다.

야학에서의 생활, 한글 혹은 수학을 배우고 난 뒤의 경험, 야학의 이동권 투쟁 이후의 생각 등등, 심사를 하기에 조심스러운 정도의 표현들이 '톡톡' 쏟아졌다.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심사를 해야 했다. 종이 위로 눈을 바쁘게 굴리면서 글을 하나씩 넘기며 심사를 시작했다.

궁금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덧붙인다. 심사는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진행했다. 하나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제시한 '야학과 삶'이라는 주제에 잘 맞춰서 글을 썼느냐였고, 또 다른 하나는 글이 야학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기에 적합한지였다. 그 심사 기준에 맞춰서 글을 보기 시작했다.

“애경 언니, 장콜(장애인 콜렉시) 왔대요!”

그 말 한 마디에 심장이 바빠 뛰었다. 연말이라 장콜이 잘 안 잡히기 때문이었다. 한 번 지나가면 길게는 2시간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장콜이 이날은 유독 원망스러웠다. 어느덧 나를 비롯한 세 명의 심사위원들의 손이 빨라졌다. 고작 1~2점 차이가 나는 글들이 많았다. 그만큼 글을 모두 잘 써서 심사가 어려웠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글쓰기를 끝마친 학생들은 어느덧 교실에 모여 노래를 쿵쾅쿵쾅 부르고 있었다. 박경석 고장 샘의 백일장 맛이 축하 공연도 마무리가 됐다. 장콜이 떠나기 전에, 기다림에 지친 학생들이 집으로 가기 전에, 심사를 마무리해야 했다. 그렇게 6명의 당선자가 정해졌다. 곧 이 글들은 문집으로 만나볼 수 있다.

백일장에 참석해준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또 글을 잘 썼으나 아쉽게 상을 타지 못한 분들에게는 1년 후 다시 열리게 될 백일장 기회를 노려봐달라는 아쉬움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글을 쓰지 못하는 학생은 말로 대신 읊었고 글을 쓸 줄 아는 학생은 한 자 한 자 직접 글을 썼다. 그렇게 완성된 글이 38편이었다. 좀 촌스러운 비유긴 하지만, 한 편 한 편이 정말 보석 같았다.

백인장 수상 작품



투쟁이 바꾼 시선 이상우

(노들야학에) 처음에 왔을 때 좀 신기했어. 이런 곳도 있구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있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서 좋은 학교다 생각했었어.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제대로 해볼 수 있겠구나' 싶었어.

특히 야의 수업에서 이런 느낌이 있었어. '같이 살려는 건데 왜 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 '이런 게(투쟁)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 세상이 바뀌는 거 같았어. 장애인을, 나를 보는 시선이 달랐어. 장애인도 시설에 있어야 할 것 처럼 봤었는데 '내 몸이 바깥에 나와있어서 그런 걸까?' 장애인도 시설 바깥에서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게 됐어. 내가 나와서 그렇게 보게 되는 거 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 시선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 어려워도 자꾸 부딪치면 시선도 바뀌게 돼. 요즘 활동지원사 실습이 오면 나를 보고 놀라. "몸도 안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활동하냐고."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

또 활동지원사가 옆에 있어서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이제는 생각하게 되는 게. 그렇게 새롭게 나를 느끼는 게 되는 게 좋아. 용기라고 할까. 즐겁게 살고 있어. 내가 꿈꿨던 것이 비로소 이뤄진 것 같고. 사회 나와서 공부하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 때 특히 좋아. 결혼도 마찬가지고.



야학 조호연

여기 오기 전에 외로웠는지 집에도 밖에서도 외로웠는지 언제부터가 어디서 들려왔는지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바람타고 나를 부르는 소리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인가 두리번두리번 거리며 바람따라 간 곳 그곳은 항상 시끌벅적 선생보다 학생 나이가 많은 특별한 이곳 이곳엔 친구들이 많아서 기뻐서 날 반가이 맞이해 주는 이곳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이 좋은 이곳



이영애의 한글 정복기 이영애

제가 2002년도에 사회복지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정립회관의 주간보호센터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한글을 못 배웠다니까 3층에 '노들장애인야학'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같이 가서 야학 선생님께서 소개시켜주고 그 때부터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ㄱ, ㄴ, ㄷ부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는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했는데, 2년이 넘어가니까 조금 글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맨 처음에 집 앞에 있었던 '이발소'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국어반에 계시는 정민구 선생님이 '도가니' 책을 학생 분들께 만들어주셨어요. 도가니를 읽으라는 숙제를 내주셔서 평일에는 조금 일찍 와서 글을 읽었습니다. 책을 한 학기 동안 떴습니다. 야학에 온 지 2~3년이 되자, 글을 다 떴습니다. 텔레비전 자막도 다 읽을 수 있고, 외국영화 자막도 조금씩 읽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한글을 몰라서 답답했었는데, 이제 글을 잘 읽을 수 있어서 제 자신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교단일기]

우당탕탕 낫수업 파이팅

김지예

후회하는 일이 취미인 집순이지만 늘 세상일에 촉을 세우고 삽니다.

씨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꽃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영화 <타짜> 대사 중-

씨늘하다. 가슴에 고향이 날아와 꽃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눈치는 소리보다 빠르니까.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노들야학 성인 발달장애인분들과 함께 하는 (일명) 낫수업에 임한 나의 자세를 영화 대사로 패러디해봤습니다. 눈치코치를 장착하고 1년 반을 많이 웃고, 조금 억울하고(?), 또 아주 많이 궁금해하며 함께 수업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함께 했다고 생각했는데, 적고 보니 많이 미약하네요.

처음 낫수업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경험은, 시골에 살던 제가 처음으로 피자를 먹고 멀미가 났던 때와 비슷합니다. 말로만 들었던 피자라는 음식, 티비로 보고 들었던 피자가 배달되기 전까지의 떨림, 그

리고 드디어 그 한 조각을 입에 넣었을 때의 당황스러움... 낫선 치즈 냄새 때문에 더는 먹지 못하고 멀미가 났었습니다. 처음 낫수업에서 학생분들을 만났을 때도 비슷했어요. 익히 듣고 보고, 배웠던(!) 사람들이었지만, 저는 그 날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처음 수업에 들어갔으니, 열심히 한다고 수업 내내 옆드려 있던 지선님에게 말을 걸었죠.

“수업이 재미없어요?”, “네/에.”, “그림 그리는 것 안 좋아해요?”, “안-좋아해.”, “그럼 어떤 걸 좋아해요?”, “나, 와아아아!!”(고함)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지금도 가슴이 철렁할 만큼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임당샘이 말을 많이 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줬어요. 그 날을 시작으로 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개인 사정으로 수업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날들 중 기억나는 몇 가지를 적어봅니다.

신발을 왜 그렇게 신을까?

수업 초반에는 학생 분들을 많이 관찰했다. 말하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앉는 것, 걷는 것 등등 그때그때마다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그 중 재형님의 신발이 눈에 들어와 한참을 들여다본 적이 있다. 간혹 신발을 거꾸로 신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으나, 신발은 거꾸로가 아니었다. 그런데 어딘가 어색해서 보고 또 보았다. 그러다 보니, 재형님의 흰 운동화의 혀가 안으로 말려 들어 있어서, 운동화를 신었음에도 샌들을 신은 것처럼 검정양말이 흰히 보였던 것. 보기만 해도 너무 찝찝했다. 그래서 바로 재형님에게 말씀드리고 운동화의 혀 부분을 뽀뽀하게 펴서 다시 드렸다.

그리고 몇 분 후 재형님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재형님은 운동화를 벗어놓고 쭈그리고 앉아 운동화의 혀를 다시 밀어 넣고 있었다. 한쪽을 그렇게 하고 다시 신고, 나머지 한쪽까지 다시 구겨 넣고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아불싸. 나는 재형님의 운동화가 ‘잘못’되었다고 ‘혼자’ 판단했고, 그의 의견을 묻지 않고 수정했다. 내 보기엔 정답이라고 생각한 방식을 그에게 강요한 셈이니, 부끄럽고 미안했다. 아주 사소한 나의 생활방식마저 의심해야 한다. 잠깐 균형을 잃으면 나의 방식을 그분들에게 강요하는 꼴이 된다. 조심!

빨강 배추, 무지개색 배추는 괜찮은 걸까?

어느 날은 텃밭을 일구는 수업을 연계해서, 우리가 심은 배추와 무, 고구마 같은 것을 프린트해서 색칠하

기로 했다. 그때 수업주제는 자립생활체험 같은 것이었는데, 학생분들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색으로 배추, 무, 고구마를 칠했다. 어떤 배추는 빨강이었고, 누구 무는 보라색 무였다. 아예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게 색으로 뒤덮이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고심에 빠졌다. 이 시간이 미술시간이라면 빨강 배추, 보라색 무 같은 것들이 작품이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자립생활 수업에서는 배추가 초록색이라고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닐까? 배추가 초록색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빨강, 검정, 보라색으로 바꾸어 칠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당시에는 ‘배추는 원래 초록 색인데, 여러분 마음대로 색칠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는 지금은 ‘뭐 어쨌든, 언젠가는 빨강배추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혼자 있어도 되는 날

매주 월요일은 격주로 체육관에서 하는 체육수업이다. 야학에서 가까운 대체육관을 빌려 이용한다. 공동체 놀이로 줄다리기와 박 터뜨리기를 한다. 이 두 놀이는 시작과 동시에 ‘잡아당긴다’와 ‘집어 던진다’, 그리고 짧은 순간 온 힘을 쏟는다는 단순한 규칙으로 학생분들에게 인기가 좋다. 그러나 수업은 3시간. 두 가지만으로는 부족했다. 다시 뭔가를 채워 넣으려고 할 때, 학생분들이 보였다. 누구는 넓은 체육관의 끝과 끝을 (활짝 웃으며) 혼자 걸었고, 누구는 허공에 대고 뽀뽀 공을 찼다. 누구는 우리와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있었고, 누구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느라 바빴다. 장기님은 수업시작부터 팽이를 돌리기 시작해서 쉬는 시간에도 팽이를 돌려 맘을 한 바가지 흘렸다. 짜여진 프로그램 없이도



다들 너무 잘하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학생들은 좁은 집에서, 늘 사람이 북적대는 야학에서, 365일 24시간을 타인과 한 방에서 지내야 하는 시설에서 부대끼며 지내고 있다. 체육시간만큼은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 혼자서도 저렇게 즐거운데 뭐가 더 필요해?

**그동안
이 넘치는 에너지를
다 아껴고 살았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글귀 중에 이런 말이 있다. '흥이라는 것이 폭발한다.' 이 말은 우리 학생들을 두고 하는 말이 틀림없다. 못 믿겠다면, 노래방 수업에 함께 해보시라. 당신은 얼마 못 가 지쳐 나가떨어지고 말 것이다. 단, 같은 노래를 연속으로 세 번 이상 듣고도 즐길 수

있다면 인정. 그런데 실마... 그런 사람이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어딜 봐.
넌 나만 바라봐.**

처음엔 데면데면했던 학생분들과 조금씩 맘이 닿으면, 어느 순간 가까워져 있다. 기쁜 마음도 잠시, 곧 못 볼 꼴을 많이 보게 된다. 더는 숨길 필요가 없으니, 맘 놓고 자신을 드러내는데, 화내고, 놀리고, 울고, 집에 안 간다고 버틴다. 이럴 땐 정말 환장하는데, 이게 관심 받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일 때가 많단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전 맹세코 여태껏 살아오면서 남한테 이렇게 많은 관심을 준 적이 없어요... 부족한가요? 네. 부족합니다. 그래요, 눈과 입이 몇 개 더 있었으면 좋겠군요. 여

기 관심 리필이요? (교사-예산 총원이 시급하다)

**교사와 동료
사이에서 줄타기를.**

수업을 하다 보면 종종 헛갈린다. 수업 안에서는 학생과 교사로 구분되니, 나는 웬만하면 교사로서 행동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자괴감에 빠진다. 내가 교사라니 오글거려서. 우리 그저 함께 살아가는 동료인데. 그렇지만 나는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역할을 바꿔가며 이용한다. 수업이 끝났는데도 집에 안 간다고 버티면, 교사인 척 엄포를 놓고, 다른 학생과 싸워 맘이 상한 학생 앞에서는 그 학생 욕을 하면서 같이 공감한다. 솔직히는 위계가 느껴지는 교사역할보다는 동료가 하고 싶지만, 안 먹힐 때가 많아 종종 교사 노릇으로 상황을 모면한다.

**정답이 알고
싶었다.**

알고 싶은 문제가 많았다. 최대의 난제는 학생들의 관계 맺기였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법,



거절당했을 때 받아들이는 법, 화가 나도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화풀이하지 않는 법, 화를 표현하는 법, 사과하고 사과받는 법 등등. 정해진 메뉴얼이 있었으면 했다. 그런데 나열하고 보니, 나부터 익숙해져야 하는 것들이다. 세상사 어디에서나 일어날 일들을, 학생들의 장애를 덧붙여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처음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의 변화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내가 제일 많이 변한 것 같다. 오호, 이 또한 큰 성과로다!

지인들과 낯수업 이야기를 하면서, 발달장애인을 만나는 일은 무엇을 상상하든 어차피 그 상상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살지 않고는 다 소용없다는 뜻이었죠. 저는 수업을 하는 동안, 진즉에 우리가 같이 살았더라면, 조금 더 빨리 이분들이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았더라면 조금은 수월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립생활 수업 중에 카페 이용 프로그램만 해도, 기본적인 돈 계산은 물론이고, (꺼내기 싫은) 지갑 꺼내기, (주기 싫은) 돈 꺼내기, 메뉴 고르기, 메뉴판 읽기, 그보다 앞서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 카페모카의 차이 알기,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메뉴 찾기 등.. 우리 사이에 벌어진 틈은 꽤 구체적입니다.

앞으로는 떨어져 지내온 만큼의 시간을 옴팡 쏟아부어야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서로의 차이를 영영 좁히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업합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수업은 필요하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매일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수업의 가치는 충분하니까요.

그러니까.. 2019년 우당탕탕 낯수업 파이팅!

낮수업, 긴장감과 허기짐의 이유를 찾아서

교사 세미나 후기

이화영

그래픽디자이너는 무얼하는 사람일까가 늘 궁금한 그래픽디자이너. 늘 만드는 생활이 두려워져 잠서 쉬며 만나지 못했던 관계들을 노들야학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 노들야학의 낮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 30부터 4시까지 주제가 다른 요일별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월요일은 자립생활 수업으로 야외 활동과 체육관 수업, 화요일은 만딩고 댄스 수업, 수요일은 핸드드립 카페 수업, 목요일은 진 만들기 수업, 금요일은 노래방 수업을 한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저녁 야학 활동을 오래 한 학생들과 시설에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학생들 약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요일별 수업들을 살펴보면, 나의 일주일 활동 시간표로 삼고 싶을 정도로 매일 흥미진진한 수업들이지만, 교사로 참여하는 나는 솔직히 재미보다는 힘들다란 말이 먼저 튀어나온다. 점심을 먹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지만, 수업이 끝나는 동시에 “배고파!”를 외치며 주머니 속 사탕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행동 패턴이 되어버렸다. 이 허기짐의 이유를 따져보자면 2시간 반 동안의 수업 시간에 내 몸의 감각들은 모두 초긴장 상태에 놓이기 때문인 듯하다. 서로 조금씩 다른 장애의 특징 때문에 학생들이 표현하는 언어와 욕구가 모두 다르고, 거기에 교사의 언어와 욕구가 서로 얽히게 되면, 우리는 서로의 다양한 언

어와 욕구를 알아채기 위해 몸의 모든 감각들을 깨울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자연스럽게 놓이게 된다. 때문에 이런 긴장감과 허기짐을 반복해 느끼는 낮수업 교사들은 발달장애인의 이해를 주제로 각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교사 세미나를 열어보기로 계획하였다.

10월 13일 금요일 발달장애인의 도전 행동과 교수 환경(박미경 교사)을 주제로 시작한 교사 세미나는 10월 17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9시에 노들장애인야학 4층 세미나실에서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였던 ‘발달장애인의 도전 행동과 교수 환경’은 개인적인 일정으로 불참하게 되어 2회차 세미나부터의 소감을 적겠다.)

2회차 세미나는 ‘발달장애인 교육의 원칙들-길잡이 교사’란 주제로 전 특수학교 교사이면서 노란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조상필님이 진행했다. 발달장애인들의 특징에 대한 소개와 상필님의 특수학교 교사 시절의 경험담 이야기 후 바로 그룹 토론으로 이어졌는데, 낮수업 교사



교사세미나 5회차, 소진님의 강의

들이 경험한 수업시간에서의 갈등 상황 및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경험하지 못한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치게 되어, 길잡이 교사에 대한 충분한 토론으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3회차 강의는 ‘발달장애(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이해’를 주제로 중부대학교 교수 김기룡님께서 해주셨다. 지금까지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과 예산 규모 그리고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과 관련하여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대한 미래의 발달장애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국가가 바라보는 발달장애인의 지원 규모나 시각, 태도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다. 현재의 노들야학이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을 포용할 때, 실제로 무엇을 고려하고 어떤 지원 가능한 관계들을 맺으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와 조언들도 더불어 듣게 되어, 앞으로의 수업 운영에 참고하고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 4회차 세미나는 스쿨오브무브먼트의 최하란 대표의 ‘발달장애인 돌발 행동에 대한 안전한 방어와 실천’을 주제로 셀프 디펜스, 자기방어 훈련 시간을 가졌다. 최하란 선생님은 여러 기관과 함께 발달장애인의 돌발 행동에 대한 케이스들을 수집했고, 돌발행동이 나타났을 때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과 위험 상황들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안전한 방어와 실천은 장애인의 인권과 교육권 그리고 실무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함께 존중하고 보호하는 교육이라고 했다. 그리고 실무자들에 대한 안전한 방어와 실천에 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은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치료, 복지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 시간가량의 강의 후, 간단한 스트레칭과 몸풀기를 시작했다. 두 사람씩 짝을 짓고, 우선 방어를 하기 전 돌발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는 언어와 목소리, 어투와 손짓 등을 연습하고 나서, 방어할 때 공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몸의 위치와 동작들을 실습했다. 자기방어의 기본 원리는 1. 손을 들어

자신을 보호할 준비를 하기 2. 상대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3. 공격의 경로에서 벗어나기 4. 안전한 각도와 거리를 유지하고 주시하기 라고 한다.

마지막 5회차 세미나는 '발달장애인의 교수 학습 방법과 교수 환경'이란 주제로 현 특수학교 교사인 소진님의 강의였다. 사실 이 강의는 특수학교 교사들이 공부하고 사용하는 학습법 전문 용어들이 많아 나오서는 강의 내용을 바로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소진님이 실제로 학교에서 쓰고 있는 빼곡한 학생 관찰 일지와 글과 그림이 함께 있는 교수 도구의 예시를 보니, 꾸준한 관찰과 자세한 기록들이 쌓여야만, 학생들의 언어와 욕구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들장애인야학의 낮수업 교사를 시작하기 전, 나의 일상 안에서 장애인들을 만나 사회적 관계를 맺어본 경험과 기회가 있었는가, 스스로 묻는다. 늘 타고 다니는 저상버스 안에서 장애인 이용자를 만나본 적 있는가? 지하철 엘리베이터 승강장 앞에서 있는 장애인을 본 적 있는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본 적 있는가? 내가 일하는 곳에서 장애인 노동자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가?

낮수업에서 매일 경험하고 있는 허기짐과 내 몸의 모든 감각들을 초긴장 상태로 놓아야 하는 어쩌면 당연한 이유는, 비로소 학생들과 만나게 된 관계 때문일 것이다. 이제야 난 한 학기를 함께한 낮수업 20여명의 학생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수업을 좋아하고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는지 알게 됐고, 한 명 한 명의 표정들이 뚜렷이 그려진다. 맛있는 것을 더 먹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과 오래 이야기 나누고 싶고, 좋아하

는 노래를 여러 번 듣고 부르고 싶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수업 시간에도 그냥 드러눕고 싶고, 하는 이러한 마음과 욕구들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는 것 아닌가. 한 번의 교사 세미나로 낮 수업 학생들을 이해했다고, 알 것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이제야 나와 그들이 분리가 아닌 만남의 관계로 서로 한 걸음 내디뎠을 뿐이다. 곧 개학이다. 우리는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하루하루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시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돌아가도 괜찮은 관계가 되었다. 일상의 부분을 나누는 우리는 또다시 수업을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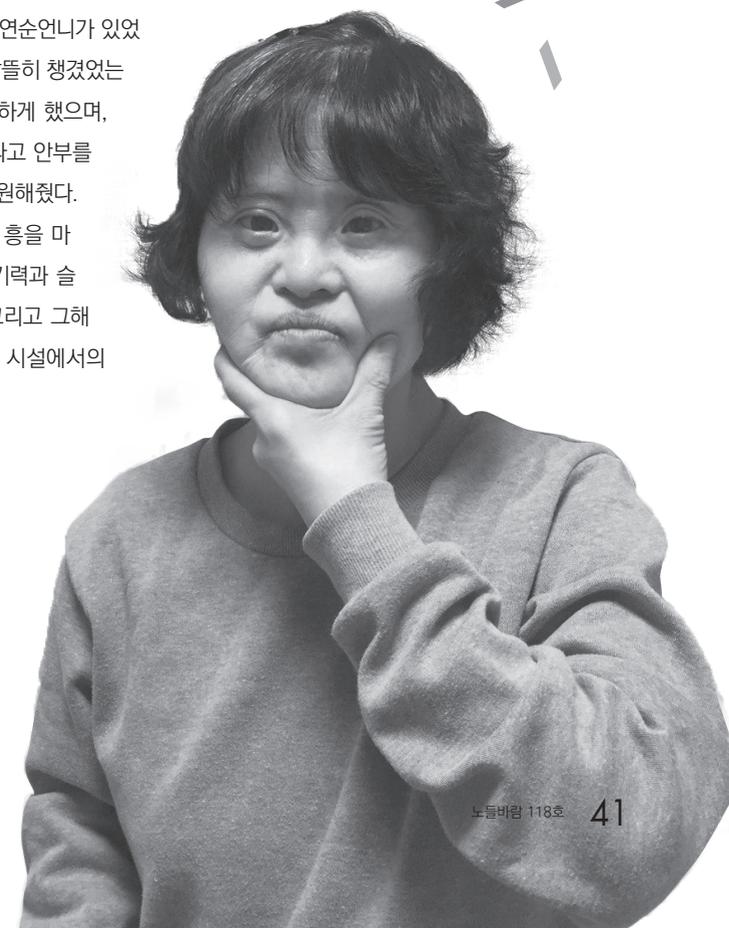
[자립생활을 알려주마]

연순 아파트

고권금

소개글을 쓰려고 하니 Superorganism의 Something for your mind 노래가 생각나네요.

슬랩스틱, 다정함, 리더십, 사진, 춤, 음악.. 연순언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2017년 여름, 인강원에 거주하는 몇몇 분들이 야학 낮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연순언니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함께 등하교하는 친구들을 늘 살뜰히 챙겼었는데, 다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 화해하게 했으며, 누군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왜 그래?'라고 안부를 물어봐 줬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지원해줬다. 또 연주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 넘치는 흥을 마음껏 발산했고, 할리우드 배우 뱀치는 연기력과 슬랩스틱으로 언제나 웃음을 선사해줬다. 그리고 그해 겨울 12월 11일, 연순언니는 43년이라는 시설에서의 긴 생활을 정리하고 자립했다.



권금 여보세요. 연순언니예요?
연순 네, 맞아요.
권금 언니, 저 노들야학에서 아프리카 춤¹ 같이 했던 권금이예요. 기억나요?
연순 네, 기억나요!
권금 요즘 뭐하고 지내요?
연순 밥 먹고 있어요. 간식도 먹어요.
권금 그렇구나.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연순 아파트 와요.
권금 언니네 집에 놀러가도 돼요?
연순 네, 아파트 와요.
권금 아파트 이름이 뭐예요?
연순 김연순이요.
권금 언니 집이 어디에 있어요?
연순 2층이요.
권금 거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순 아파트로 와요.

연순언니네 집은 5층이었다. 집 안에 들어서니 늦은 오후의 햇살과 따뜻한 온기가 집 안을 에워싸고 있었다. 깔끔하고 잘 정돈된 집. 둥그런 러그 위의 나무탁자와 그 맞은편의 아이보리색 소파가 제자리에 안정적으로 위치해 있었다. 편안했다. 집에는 연순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거주인의 사진이 곳곳에 붙어있었고, 부엌으로 들어가는 벽에는 돌의 약속을 적어둔 종이가 붙어있었다. 집 안을 둘러볼수록 아직 치과에서 돌아오지 않은 연순언니가 더 보고 싶어졌다. '티비는 사랑을 싣고'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던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길 바라는

기분은 이런 것일까 하는 과장된 생각을 하며 기다리다 보니, 언니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연순언니의 얼굴은 그대로였다. 환하고 밝은 얼굴을 마주하니 비로소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권금 언니 요즘에 뭐하고 지내요?
연순 이빨. 치과
권금 언니 치과 갔다 왔죠? 그 다음에 또 뭐했어요?
연순 밥 먹었어요. 고기.
권금 무슨 고기?
연순 닭.
권금 밥도 먹고, 또 뭐해요 요즘에?
연순 김 먹어요.
권금 김도 먹고 또 뭐해요? 언니 엄청 바쁘다던데?
연순 노래도 부르고, 연극도 하고. (최근 참여한 연극 대사의 일부) 안녕~ 잘 가~. 요정.
권금 언니가 요정 역할이었어요?
연순 응. 춤추고.
권금 언니 노들 기억나요?
연순 생각나요.
권금 언니 잠깐만요. 우리 예전에 같이 찍었던 사진 보여줄게요.
연순 네. (사진을 보며) 어, 여기 있다. 여기 앞에.
권금 누군지 기억나요?
연순 몰라. (다른 사진 보며) 어, 이게!
권금 엠마! 엠마 기억나요?
연순 어. 나다. 나야. (엠마)선생님하고 (권금)선생님하고 나. 세 명. (다른 사진 보며) 희숙. 공연해.
권금 맞아. 우리 공연도 했죠?

연순 고지선. 고지선. 고지선.
권금 언니 여기서 사니까 좋아요?
연순 좋아요.
권금 뭐가 좋아요?
연순 아파트.
권금 아파트가 좋아요?
연순 네.

집 구경 좀 시켜주세요. 언니 방은 어디예요?

언니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부터 시작해서 방 안에 있는 모든 서랍을 열어서 보여주었다. 옷을 개켜서 넣어 놓은 모양이 무척이나 정돈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문구류를 넣어둔 서랍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한 눈에 다 보일 정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연순언니는 정리왕이었다. 그 다음에는 서랍장 위와 문에 걸린 편지와 사진들을 소개해줬다. 언니는 사진이 좋다고 했다. <노들바람>에 실을 사진을 찍고 나자 그때부터 언니는 휴대폰을 들고 언니가 소개해주고 싶은 모든 것을 찍기 시작했다.



이건 옷이야. 이진 공책, 이진 지갑, 이진 휴지. 이진 사진. 이진 빨래...(주방으로 이동해서)이진 밥이고, 이진 계란. 이진 김. 계란이랑 김 좋아 그리고 브라자. (다시 방으로 돌아가서) 이진 수건, 이진 속옷. 속옷 좋아.

언니는 좋아하는 것들은 두 번씩 찍었다. 그렇게 30장이 넘는 사진을 찍고 나서 우리는 집 구경을 마쳤다. 집 구경을 마치고 언니의 근황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으나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로 한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근황토크를 하기로 했다. 저녁식사를 하러 가는 연순언니의 뒷모습을 보며 언니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봤다. 치킨, 계란, 김, 브라자. 자립 1년 차 연순언니는 특유의 위트와 자신감으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 같았다. 형용하기 어려운 여러 감정들이 올라왔지만, 일단은 점심에 닭볶음탕을 먹고 저녁에 치킨버거를 먹으러 가는 연순언니의 확고해진 취향과 결단력에 감사함을 느끼며 큰 응원을 보낸다.

¹ 아프리카 만행 문화의 춤. 2017년부터 매주 1회 노들장애인야학에서 공연단체 '쿨레칸'의 춤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참여자들 자신의 몸을 이해할 수 있고, 몸으로의 소통에 중점을 둔 수업이다.

[나는 활동지원사입니다 1]
활동지원사의 보람

김향길

활동지원사로서의 출발은 나의 생활영역에서 익숙한 경쟁적인 삶의 방식을 흔들며 깨치기 시작했다. 교육기간과 실습시간에 활동지원사로서의 자세를 다짐하곤 하였지만 현장에서는 다짐을 넘어 생활로 녹아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했다.

첫날 수동 휠체어에서 전동휠체어로의 이동, 발판 끼우기, 조끼와 패딩 입히기 등을 하는데, 발판의 암수가 왜 그렇게 어긋나는지, 패딩의 팔은 왜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신발도 나를 당황케 만드는지 땀이 났다.

이용자가 전동휠체어로 이동 중에 멈추더니 갑자기 “손 밑으로” 한다. 운전하는 손바닥 밑에 무엇이 있나(?) 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연이어 “손 땅으로”, 그래도 움직이지 않자 “손 아래로” 한다. 겨우 이해하고 손을 잡고 팔을 끌어 아래로 늘어뜨렸다. 이 상황은 ‘날씨가 차가워



팔이 경직되었으니 팔을 팔걸이 밖으로 잡아끌어 땅바닥을 향하여 밑으로 떨어뜨려라’라는 내용이었다.

공자가 예순에는 남의 말을 들으면 곧 그 뜻을 깨달아 이해하였다고(六十而耳順) 한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지? 이용자는 자신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래서 필요한 요구사항을 말하는데, 굳이 주어와 술어가 필요 없다. 목적어 중심으로 말하는데 그

자립생활 즉 자기 의사로 결정하며
 존중받는 인권자로서 살아가는 이용자의 삶을
 지원한다는 뜻깊고 의미 있는
 활동지원사를 하게 되어
 ‘이순’을 넘긴 나의 내면이 충실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

이유는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며 또한 그 사실이 너무 다급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말하기 위해 목적어만 사용한다.

공자는 “이순”에 도달하기 전에 “삼십이립”(三十而立), “사십이불혹”(四十而不惑)이라는 과정을 거쳤듯이, 활동지원도 이용자의 상태를 확립하고 판단에 혼란이 없어야 듣는 대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고 인권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가? 라고 자문자답해 본다. 그렇다. 시설이 좋지 않은 것은 환경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사 결정에 따른 자립이 없고 수동적 존재로 만들기 때문이다. 자기 의사가 존중될 때 인권도 인정된다. 또한 장애를 응급적인 상태로 인식하여 의료적인 조치와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 의료적 돌봄도 시설과 함께 “의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기치료를 바뀌어야 자립생활이 이루어진다. 응급적인 질병과 질환은 당연히 의료적 조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장애는 대부분 만성적이며, 완

치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장애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적 치료와 완치의 대상이 아니다.

활동지원이 시설에서의 돌봄시스템이나 장애를 치료 가능한 응급으로 인식하는 것을 닮아 간다면 자립생활을 목표로 하는 활동지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립생활 즉 자기 의사로 결정하며 존중받는 인권자로서 살아가는 이용자의 삶을 지원한다는 뜻깊고 의미 있는 활동지원사를 하게 되어 ‘이순’을 넘긴 나의 내면이 충실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

[나는 활동지원사입니다 2]

근육장애인 K씨와의 인연

윤샘

화려하고 자극적인 행복보다는 단순하고 안정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1일 1선을 실천하려는 사람

14년 전 근육장애인 K씨를 알고 나서 내 인생은 정말 많이 바뀌었다. 미래는 내 예상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 내가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사 일을 하고 있을 줄은 예전엔 상상을 못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누구든 그럴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까를 늘 계획하며 살았지만 정작 나는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 행복하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두었고 우연히 K씨를 알게 되었다.

K씨를 통해 장애인야학을 알게 되었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장애인분들과 무보수로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야학 선생님들을 알게 되었다. K씨는 선천성 근육장애라는 힘든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참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졸 검정고시를 패스했고 야학 선생님들이 만든 사회적기업 노란들판에 인턴으로 취업을 해서 정직원이 되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K씨가 대단하다. 그

렇게 1년 6개월 정도를 K씨와 함께 보내고 나는 다시 예전 사회로 돌아왔다.

다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K씨와 인연으로 근육장애인을 많이 알게 되었다. 근육장애인 전국 정모에 봉



사자로 참여하면서 협회 임원진 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근육장애인분들과 친해졌다. 그러다 보니 근육장애에 대해 참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3000여 종류의 근육병이 있고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건 추위와 감기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추위와 감기는 근육병을 빠르게 진행시키기 때문이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겨울 동안 호주 같은 따뜻한 나라에 머물다 오시기도 한다.

그러던 중 내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다시 회사 일을 그만두고 좀 쉬다가 예전에 장애인 활동보조 일을 했던 좋은 기억이 있어서 장애인센터를 갔는데 참.. 인연이란 게 이상하게도 또 다시 K씨를 만나게 된 것이었다. 다시 만난 K씨는 여전히 노란들판에서 컴퓨터 디자인 일을 하고 있었다. 근육병이 많이 진행되어 있었지만.. 곳곳이 노란들판을 다니고 있었다. 현재 K씨는 12년째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 (2019년 기준)

14년이란 세월은 K씨의 근육병을 많이 진행시켰고 예전보다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K씨는 노란들판을 누구보다 사랑한다. 노란들판은 K씨에게 삶의 거의 대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많이 아프면서도 회사사람들에게 내색하지 않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K씨를 보며 나는 참 많은 것을 느낀다. 그리고 K씨의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이란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배운다. 세상의 많은 어머니들이 위대하지만 K씨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각별하다. 최근에 K씨 어머니는 K씨를 더 잘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다.

K씨와 나는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 세월이 갈수록 상대를 좀 더 이해해가는 것 같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배울 것이 있기에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오고 있다. 나는 K씨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란 것도 깨닫고 있다.

K씨를 통해 야학 선생님들, 근육장애인협회 분들과 봉사자님들 그리고 노란들판 직원들을 알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공통적인 건 이분들이 모두 착하다는 사실이다. 내가 착하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난 착한 사람이 좋다.

난 K씨의 근육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육병은 참 힘든 병이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말 많은 차이가 난다.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잘 관리를 하면 충분히 삶을 즐길 수 있다. K씨가 앞으로 더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게 오래 노란들판을 다니도록 나도 옆에서 도울 것이다.

노들과 함께한 예술인 파견 사업을 통해서...



도저킴

도저킴은 사진을 매체로 작업을 한다. 4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 및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최근에는 생애주기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커뮤니티 작업도 함께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을 미디어로 하여 시각예술 작업을 하는 도저킴입니다. 저는 노들장애인야학의 수업 기록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2018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사업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수업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명희 선생님과 또 이번에 함께 참여했던 파견 예술인들과의 회의를 통해 우리는 노들의 학생분들을 위한 증명사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익숙한 그리고 매일같이 드나드는 노들의 교실에서 조명을 설치하고 배경지를 설치하여 자연스럽게 함께 노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담아보았습니다. 처음엔 저에게도 이러한 촬영은 다소 낯선 경험처럼 느껴졌지만, 점차 회차가 지나면서 익숙해질 수 있었고 또 저의 사진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정말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얼굴은 각각의 인생의 흐름이 묻어 나오는 통로이자 우리의 감정을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개인의 첫 인상을 나타낼 수 있는 증명사진이나 공식적인 서류에

쓰이는 사진 또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수 있는 또는 매우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에 저의 작은 존재를 노들에서 함께 만들어 가볼 수 있어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프로젝트를 지지해주고 함께 해준 한명희 선생님과 노들의 학생분들 그리고 예술인 파견사업의 참여 예술인들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증명사진

박정숙

노들장애인야학 한소리반 학생이고, 노란들판 활동지원사교육기관 활동가입니다.

사진은 추억이라고 한다. 나는 평상시에는 셀카도 잘 안 찍는다. 사진 속에 나는 늘 어색하고 멧쩍어 보여서 볼 때마다 맘이 불편했기에 내 모습을 찍는 것보다 주위에 풍경이나 하늘 찍는 것을 즐겨 하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SNS 프로필로 쓸 만한 사진을 고르기도 쉽지 않아서 잘 바꾸지 않는다. 여행을 가거나 동네에서도 돌아다니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 추억이라고 할 만한 사진이 없었다. 노들야학에 오면서 모꼬지를 가고 단합대회를 가고 하면서 내 앨범에 사진 한 장씩 남기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갔던 모꼬지에서 50여년을 살아온 시간들을 따지면 제일 사진을 많이 찍었다. 사진을 보며 알았다. 웃는 모습이 참 근사하구나, 그리고 또 알았다. 옆에서 함께 웃어준 친구가 있어서라는 것도. 지금은 내 마음에 내 앨범에 항상 미소 짓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내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을 아주 싫어했던 내가 앨범을 넘겨볼 수 있게 됐다. 사진이 어색해 보이는 만큼 웃음을 주는 추억이고 그것이 나였다. 멧쩍지만 이런 나를 인정하며, 늙어가는 것이 드러나는 사진도 이젠 좋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젠 노들 안에서 사진을 찍거나 찍히거나, 더 많이 내 마음과 앨범에 저장하고 싶어졌다. 이렇게 사진은 나에게 많은 의미로 다가오고 품어지고 때론 버려진다. 2018년 여름, 야학에서 원하는 학생들의 증명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가 있었다. 따로 증명사진이 없었기에 아주 신나는 이벤트라 생각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사진 찍기까지 과정에는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었다.

야학 선생님이 여러 가지 화장품과 도구들을 싸오시고 머리를 고대기로 예쁘게 말아주고, 평소에 거의 하지 않는 화장도 예쁘게 해주셨다. 생각할수록 그 시간이 행복하다. 야학 선생님들과 친구들,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야단이 났다. 예쁘다고, 무슨 일 있냐고 거울에 비친 화장한 얼굴이 다른 사람 같았지만, 젊어 보이고 예쁘고 기분이 좋았다. 사실 나는 사진관에 가 본 적이 거의 없다.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고 있는 장애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보통 사진관은 2층에 있거나 계단이 하나둘 있고, 문이 좁은 곳이 많



을 계산해야 할 만큼이 되었다. 2018년에 남긴 증명사진 속에 멧찍은 웃음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웃어질 때까지 매년 증명사진을 찍어 두어야겠다. 내 영정을 고를 때 고민하며 추억하며 웃게 해야겠다. 맘먹었고 실행할 예정이다. 화장은 하지 않아도 머리는 미장원에 가서 예쁘게 할 참이다. 그리고 야학 복도 벽을 배경으로 선생님한테 찍어 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누군가 만들어주는 포즈 말고 내가 만든 포즈로 찍는 증명사진을 저장하고 싶다. 꼭 반듯하지 않아도 구도에 맞지 않아도 되는 나를 남기고 싶다. 꼭 사진관이나 블루 스크린 앞에서가 아닌 야학 교실에서, 모꼬지에서, 투쟁현장에서 찍혀지는 사진들이 나의 영정으로 추억될 증명사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2019년에 다시 하는 내 멧대로 찍는 증명사진 이벤트가 있으면 좋겠다.

다. 물론 지금은 대형으로 하는 곳도 있긴 해도 찾기가 쉽지 않다. 들어간다 해도 원하는 포즈를 취한다거나 휠체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을 찾기 어려워 사진 찍기를 포기하는 것이 더 쉽다. 그래서 증명사진이 필요하면 집 벽에 붙어 앉아서 찍고 잘라서 쓰곤 했다. 규격에 맞게 예쁘게 만들기는 정말 어려웠다.

이제 얼굴에 늙음이 보이고 웃음에 주름이 가득한 육십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하루라도 젊은 지금 영정사진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다. 어느 사진관을 가야 할까 검색하고 문의해보면, 너무 비싸거나 접근성이 안 되거나 이지가지로 걸리는 것이 많아서 고심하던 차에 야학에서 증명사진 찍어준다고 하니 정말 고마웠고 신났다. 잘 찍어서 영정으로 쓰면 오늘 일을 기억하는 이들이 웃으며 내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아주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즐거운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많은 분들의 마음과 손길과 시간을 모아 행복한 시간을 추억으로 갖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내 나이가 이곳에 머물 시간

[대학로야 같이 놀자]

너들만 노냐??? 나도 놀 줄 안다!!!!!!!



송은영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휴학하고 장애와 관련된 분야를 체험을 하고 있는 인간비타민, 장애·비장애인 커플

노들야학을 중심으로 대학로! (혜화역)

나는 일로서든 데이트를 하든 혜화역이라는 곳을 자주 접했다. 연극도 보고 맛집도 있고 예쁜 카페들도 많은 이 곳, 하지만 휠체어 접근성은 좋지 않은 곳이 많아서 아쉬움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불편 및 개선을 바라는 점에서 짧게 이 글을 작성한다.

다른 많은 사람이 그렇듯 나도 장애인을 만나거나 장애 이해와 관심을 가지기 전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기에 보고 싶은 연극을 보고, 맛집을 가고, 카페를 갔다. 하지만 장애인들과 어울리고 장애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생기면서 보이기 시작한 장애접근성에 대해 다음의 2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려 한다.

#연극, 뮤지컬

장애인 편의시설이고 뭐고 잘 몰랐으니 계단이 있어도 쉽게 오르락내리락하며 다녔는데 일(장애인활동지원사)과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면서 돌아다녀 보니 옛날 건물이 많아서인지 대다수의 공연장에 계단이 많아 다니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내 이용자는 잡을 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어 공연장에 들어가기에 비교적 수월했지만, 남자친구와 다닐 때는 휠체어째로 계단을 올라가야 해서 힘든 점이 많았다.

또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좌석 선택의 제약이라던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미흡 또 휠체어에서 옮겨 앉아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있는데 이렇다 보니 내 이용자를 비롯하여 여러 장애인들은 연극이라는 것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마치 꿈의 공연(?) 같은 것이 된 것 같다. 뿐만 아니

라 연극과 뮤지컬을 장애인이 본다는 의식이 없는 거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옛날 장애인이 영화를 보러 다니기 시작한 때처럼 장애인이 어떻게 왔지, 장애인도 연극과 뮤지컬을 보는구나 등 인식개선이 필요할 거 같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전 앞설 만한 영화관 접근과 인식은 나름 긍정적이지만 다른 예술 분야는 언제 좋아질지 다 같이 고민하고 투쟁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영화나 드라마와는 다른 매력 있는 공연인데 쉽게 접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음식점 및 카페

서울에 맛집과 카페는 많지만 우선 난 타겟을 젊음의 거리 대학로로 정하여 조사를 해보았다. 근처에 대학가들이 많아서 내로라하는 음식점과 카페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거다. 가게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거기에 비장애인들이 돈을 많이 쓰기에 굳이 장애인 손님까지 받아가면서 접근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 중에 수동휠체어나 전동휠체어가 들어가기 편한 식당과 카페는 별로 없다. 이 점도 많이 아쉽다. 장애인들도 손님이고 문화를 즐겨야 하는 젊음과 돈이 있지만 대부분 계단과 턱이 있다. 턱 하나만 있어도 전동휠체어는 물론 수동휠체어도 혼자서는 문화를 즐기고 여유롭게 놀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다. 장애인들도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가고 싶은 곳을 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한 소확행을 하면 좋겠다.

장애인들도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가고 싶은 곳을 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한 소확행을 하면 좋겠다



My Darling 노들야학!

25th 노란들판의 꿈 '언제라도 놀러와요' 노들야학 노래팀 후기

박준호

노들야학 교사

25번째 노란들판의 꿈이 2018년 11월 3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야학 개교 이래 '노들인의 밤'이라

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야학 학생들의 발표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던 이 행사는, 노들야학의 대학로 시대를 맞아 종로구 대표 축제를 꿈꾸며 '노란들판의 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들 단위의 축제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노들야학 교사회의에서도 매년 노란들판의 꿈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두고 회의가 이어진다. 처음 노들야학의 교사를 하면서부터 상근자를 거쳐 다시 비상근하는 교사가 되어서도 행사와 관련된 일에는 언제나 멋지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와서, 나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할게요'하고 말을 잘 하지 않는다. 간혹 제안할 내용이 머리를 스쳐도 일이 많아지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할까 싶어서 끝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다. 그런데, 내 기억으로는 노란들판의 꿈을 앞두고 진행된 첫 교사회의에서 교장선생님이 합창을 제안했다. 교사와 학생 전체 합창 순서가 있는데 이걸 말하는 것이냐, 교장선생님이 노래를 하고 싶다는 것이냐, 짧은 논쟁과 혼란의 순간이 지나고 교장선생님이 전체 합창과는 별도로 교사들의 노래공연을 제안한다는 정리 입



장을 밝혔다. 그리고 노래 공연에 함께 하겠다는 교사들이 손을 들었다. 지원자가 나온 이후부터는 속전속결로 공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들(중 몇몇)은 이후 연습에 잘 나오지 않았다. 나는 손을 들지 않았다. 그러나 노란들판의 꿈 준비위원이라는 이유로 이후 책임을 지고 노래 선곡과 연습 및 기타 준비 등을 도맡게 되었다.

노란들판의 꿈 야학 준비팀 회의에서는 노래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주섬주섬 내가 당시에 듣고 있던 지브리 OST 중 하나인 「마녀배달부 키키」의 오프닝 곡으로 사용된 노래, 「루즈의 전언」을 개사해 부를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진짜로 하게 될 줄이야. 개사까지 하라고 하니 눈앞이 막막했다. 며칠을 노래만 들으면서 연필로 깨작거리며 개사를 해보았고, 노래팀의 성원인 현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가사를 어느 정도 완성해 연습에 들어갔다. 이후 공연 하루 전까지

개사가 진행되었고 여러 선생님이 적극적인 의견을 주셨다. 이제 개사한 노래가 있지만 연습은 어떻게 할지 또 다시 막막했다. 가르쳐 줄 교사가 없고, (개사된 가사로) 따라 듣고 부를 노래가 없는데 연습은 어떻게 하나. 그때 노들야학 신입교사인 화영 선생님께서 개사한 노래를 직접 불러 녹음해 카카오톡방에 올려주셨다.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 다시 몇 번을 들어도 원곡을 듣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이렇게 준비를 시작해 이후 4번 정도의 연습을 거쳐 14명의 교사가 참석한 공연으로 노란들판의 꿈 무대에 오를 수 있었다. 연습할 때는 교사들이 다들 너무 바빠서 많이 못나오는 날도 많았고, 아슬아슬하게 연습이 진행될 정도의 인원만 나올 때도 많았는데, 밤늦은 시간까지 피곤을 참아가며 의견을 주고 연습에 참여한 교사분들 덕에 계속 진행할 수 있었다. 연습에 많이 참석을 하



지 못한 교사 분들도 계셨지만 공연하는 날에는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았다. 공연 당일 날 가오나시 가면 옷을 입고 열심히 울동해서 큰 웃음을 주신 가오나시 님(혜민 교사)께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면 다들 바쁜 시기에 연습에 나오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 공연 당일 날은 리허설 시간에 자리 배치를 하고 의상을 입고 울동을 하며 공연을 하니 꽤 그럴듯해서 나는 기분이 좋았다. 공연 후에는 빌린 의상 중 모자를 잃어버려 찾으러 다니며 힘들었다.

끝나고 나니 어떻게 끝났는지 조금 얼떨떨한 느낌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안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치 않은 경험이다. 쉽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걸 해 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 마음 같진 않지만 연습이 안 될 때마다 꼭 누군가 나타나서 웃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게 한다. 노력과 행운이 만나서 마법을 만들어내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직업도 나이도 사는 곳도 야학에서의 경험도 많이 다른 이 사람들이 같이 하는 노들야학은 참 신기하고 재밌는 곳이란 생각이 들었다. 노들야학 교사 노래팀과 노란들판의 꿈 준비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My Darling 노들야학

잊지 않았죠. 난 수업하러 가야 해.
지금 4호선 지하철을 탔어요.
황혼이 다가오는 대학로 거리
마로니에 공원을
가로질러 가고 있어요.
한소리반은 모두 출석했나요?
잊을 수 없는 내 첫
수업의 기억들
우리 반 수-업이 끝나지 않은
시간이면 아직은
장클 제발 부르지 마요.
지난 시간 공부한 것 누가 말해 줄래요?
기억이 ding-dong 더 멀어지지 말아요.
초대할게요. 어쩌면 함께 할 당신
놀러와. 노들야학에 My Darling

당신이 남긴 농성장의 편지와
노들에 남긴 내 신입교사 지원서
당신과 뒤풀이가 끝나지 않은
밤이라면 나는요
마지막 차를 보내줄게요.
다음 날 떠올라버린 태양을 보며
거리는 ding-dong 더 멀어져만 가네요.
초대할게요. 어쩌면 함께 할 당신

놀러와. 노들야학에 My Darling
놀러와. 노들야학에 My Darling

돌리고 그리고 춤추고 노래한다!

- 2018노들 피플퍼스트 -

김진수

노들야학 진수입니다.

〈노들바람〉을 구독하고 있는 독자라면 피플퍼스트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당사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그 유래를 짚고 넘어가자면, 1974년 미국 오리건주 자기권리주장대회에서 자신을 정신지체로 부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라는 말 “I wanna be known to people first.” 문장의 뒷부분에서 따온 것이다. 아무튼 피플퍼스트 운동의 시작은 그러하였고, 한국은 2009년 한국 일본 피플퍼스트 교류회를 하게 되면서 전파되어 올해로 6년째다.

이런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노들야학도 ‘노들 피플퍼스트’란 이름으로 피플퍼스트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2018년 올해는 노들 피플퍼스트가 4회째 진행되는 해이다. 노들 피플퍼스트는 낫수업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학생이 중심이 돼서 진행되는 행사다. 피플퍼스트

의 기본 취지는 당사자들이 직접 준비하고 진행하고 꾸러가는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체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력자들이 그에 맞는 조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조력자인 입장에서, 나는 이런 취지와 목적으로 노들 피플퍼스트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하려고 한다. 라는 어미에서 보듯, 발달장애인이 주체적으

로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은 여러 어려움이 따르고 옆에서 조력을 하는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이 든다.

이번 노들 피플퍼스트는 '자유로운 삶 시설 밖으로'라는 주제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는데, 주제와는 별개로 내 나름의 주제를 짓자면, '돌리고 그리고 춤추고 노래한다!'로 하겠다. 주제를 그렇게 지은 이유는 당일 피플퍼스트 행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선 부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돌리고 커피 돌리고~ 돌리고~'라는 이름의 카페수업에서 연습하고 준비했던 팝업 카페 부스가 있었고, 그 옆으로 학생들이 저마다의 개성으로 그림을 뽐낸, 진 수업의 작품들을 전시한 진수업 부스가 있었다. 팝업 카페 부스인 '돌리고 커피'의 이름은 학생들이 카페 수업을 할 때, 원두를 그라인더에 가는 실습이 있는데, 원두를 갈면서 부르는 노래(돌리고~돌리고~)에서 따온 이름이라 하겠다. 팝업 카페 부스는 낮수업 카페 수업에서 학생들과 함께 준비를 했다. 커피 가격을 같이 정하고, 카페 이름을 짓고, 컵홀더를 직접 그려서 장식하고, 손님맞이 연습을 하고, 커피를 갈고, 커피를 내리고, 돈 계산을 하고 하는 것들을 카페수업에서 몇 번이나 연습을 했다.

헌데 아쉽게도 낮수업 학생들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강원 시설에 거주하는 학생분들이 당일에 사정으로 제때 오지 못해서, 준비한 것을 함께 하지 못했다. 아쉬움이 남는다. 진수업 부스의 작품들을 보면 그 아름다움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학생들의 진 작품을 보고 무덤덤하게 지나친 사람을 난 이제껏 보지 못했다. 와~ 이야~ 라는 소리를 추적해 보면 학생들의 진 작품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소리다. 부스 전시가 마무리되고 이어진 공연은 우

당탕탕 낮수업 영상 상영으로 시작했다. '우당탕탕 낮수업'이라는 제목에서 보듯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겪은 여러 사건들을 꼼꼼히 찍어 모아 만든 영상이었는데, 학생들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우당탕탕 낮수업에 관한 영상이다.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조만간 노들야학 유튜브에 공유합니다. 노들야학 유튜브 구독해 주세요!)

영상이 끝나고, 바로 노들 노래방 순서가 이어졌다. 금요일 노래방 수업에서 불렀던 자신의 애창곡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큰 무대에서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신나게 불렀다. 수진님의 '오나라(대장금)' 노래를



시작으로 지선님의 '마법의 성' 해운님의 '고운 인연'으로, 봉규님의 '번지 없는 주막', 소민님의 '반달', 현상님의 '봉선화 연정', 장기님의 '개나리 처녀', 희용님의 '동반자', 연옥님의 '어머나', 지민님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승연님의 '내 나이가 어때서', 원주님의 '바운스', 재형님의 '에너지틱'까지, 무려 12곡의 곡을 한 분씩 나와서 불렀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있는 힘껏 부르는 모습은 그날 행사의 어떤 것보다 내게 큰 인상으로 남았다. 또 한 학생들에게도 큰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노래를 힘껏 부르고도 학생들은 에너지가 남아 있었다. 노래자랑 뒤에 이어지는 노들 춤수업 노들 에스브와 공연에서도 그 에너지는 발산됐다. 다 같이 함께 동글게 모여, 리듬에 맞춰 춤을 쳤다. 팔을 위아래로 흔들고, 엉덩이를 흔들고, 아래위로 뛰고 몸을 흔든다. 학생들이 개인별로 춤을 출 때마다 영상에서는 춤추는 학생들이 만든 진이 상영되고 있었다. 지난해 못지않은 화려한 무대였다. 마지막 무대는 '차별의 박' 터뜨리기였다. 월요일 체육수업 때 했던 박 터뜨리기를 무대에 올린 것이다. 박을 잘 못 만들어서 박 안에 있던 '노들 피플퍼스트'라는 문장을 못 봐서 아쉬웠지만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기에 딱 맞는 마무리였다.

노들 피플퍼스트를 학생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위에서 언급했지만 비장애인 교사인 내가 조력을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은 어떤 수위에 관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그런 것에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함께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 하고, 신나는 것이 무엇인지 시도를 해보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의 즐거운 것과 신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먼저인 것 같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의 조력이라면 보다 즐거울 수 있

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학생들은 커피 이름에 '돌리고'를 붙일 줄 아는 사람들이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고, 어느 노래가 나와도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리듬에도 내 춤을 추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재밌게 살 줄 아는 사람들이다. 나도 그들과 함께 돌리고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려 한다. 재밌고 신나게~!

우선 함께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 하고,
신나는 것이 무엇인지
시도를 해보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의
즐거운 것과 신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먼저인 것 같다.

우사인볼트의 100m와 소민-영애의 이어달리기 사이에서

2018 인권체육대회/모꼬지 참가기

유기훈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찾아 공학, 인류학, 의학 등을 떠돌다가 노들장애인야학에 입성하였다. 야학과 병원의 언저리에 머물며, 억압하는 의학이 아닌 위로하는 의학을 꿈꾸고 있다. 노들장애인야학 바로 앞에 사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산다.

지난 10월 27일-28일, 가을의 한복판에서 노들야학이 들썩였다. 노들야학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춘천으로 모꼬지를 갔던 것이다. 그 이름은 “춘천 가는 인권 특장차”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두 대의 버스와 몇 대의 봉고, 여러 대의 자동차가 노들야학에서 춘천으로 출발했다. 소양강에서 내려 소양강댐과 장난감박물관을 보고, 선선해진 가을바람을 맞으며 늦은 점심 도시락도 까 먹었다.



소양강에서 다시 인권 특장차에 탑승하는 야학 학생과 교사들

인권체육대회, ‘잘’ 달리지 않는 이어달리기

모꼬지의 백미는 인권체육대회였다. 넓은 체육관이 학생들과 교사들로 가득 찼고, 큰 공들 사이로 휠체어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있는 힘껏 달렸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성화를 봉송하고 노들야학의 역사와 인권과 관련한 OX게임이 진행된 후, 청팀 백팀으로 나뉘어 이어달리기가 진행되었다. 이어달리기는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가 1개 조가 되어, 설치된 여러 단계의



소양강댐에서 기념사진



한 팀이 되어 달린 수연영희 & 지민 팀



이어달리기 중, 손을 쓰지 않고 줄에 매달린 과자를 먹는 관문.

관문을 넘어서 같은 팀의 다음 조에게 baton을 넘기는 형식이었다. 장애의 종류와 중증도를 넘어서 모두가 이어달리기의 레일 속에서 어우러졌고, 휠체어의 두 바퀴와 두 다리가 합을 맞추어 달렸다. 누구도 달리기를 ‘잘’하지 못했지만 이어달리기는 끊어지지 않았다. 노들야학의 ‘2018 인권체육대회’는 그 이름처럼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 어우러져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과 편의시설 속에서 이루어졌다.

올림픽, 패럴림픽, 중증장애인의 생활체육

너무나 평범한 체육대회였지만, 한국 사회 속에서 이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인권체육대회’의 개최는 너무나 평범하지 않았다. 2018년 한국에서는 올림픽도, 이어진 패럴림픽도 진행되었지만, 선수가 아닌 장애인이 즐길 만한 ‘생활체육’은 여전히 너무 적었던 것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체육활동은 더욱 적었고, 문제는 복합적이었다. 첫째는 접근성과 이동권의 문제였다.

체육시설 접근성과 이동권

여러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체육시설 중 장애인 접근성 5개 지표를 충족시킨 시설은 전체의 22.5% 뿐이었고,¹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1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배리어프리(BF) 점수는 58.3%에 그쳐 ‘일반 등급’ 기준인 70%에 한참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이러한 접근성 문제로 인하여 2017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로 비장애인의 59.1%에 비해 1/3수준이었고, 그나마도 장애인 이용의 대부분은 경증장애인 위주로 구성되었다. 한 연구에서의 관계자와의 인터뷰 결과는 이러한 상황을 잘 대변한다.

“장애에도 등급이 있잖아요. 중증장애인 분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장애등급이) 낮은 분들에 한해서 이용하고 있어요.”

“(샤워실에 휠체어가 못 들어가기에) 1층에 휠체어를 놔두시고, 지팡이를 짚고서 혹은 본인 스스

¹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지원 계획’

² 안승엽, 조항진, 이병권, 김동학(2018), ‘장애인 생활체육의 제약요인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 2018 서울대학교 학생인권연구프로젝트 자료집.



100m 달리기 경주에서 가장 빠르게 결승선을 통과하는 우사인 볼트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 스포츠 경기인 보치아

로 걸어가세요. 아예 못 걸으시는 분은 아예 오지를 않으세요.”³⁾

접근성의 문제는 단지 '시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중증장애인이 생활체육을 하기 위한 체육지도사의 배치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는 상담을 통해 일부는 계속 받아들였다. 그런데 중증을 가지신 분들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 “그런 강사(장애인스포츠지도사)들은 1시간에 3만원을 줘야하는데 우리 예산은 그렇게 잡혀있는 예산이 없고 ...”

그나마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배치되어 있는 체육관에서도, 장애와 체육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함양된 지도사는 드물었다.

“장애인 지도사 판다고 장애인 알지도 못해요. 물

론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 이게 정말 장애인체육전문가가 맞느냐? 아닌 거지. ... 현장실습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 없는 거보다는 나은데 실제로 대표되지 못한다는 거죠.”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의 취득을 위해서는 일반 체육과목 4과목과 특수체육론 1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90시간의 연수과정을 거치지만, 단 한 과목의 필기과목과 이어지는 경증장애 위주의 연수시간을 통해 중증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노하우를 익히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⁵⁾ 2018년 기준 서울시의 장애인전용체육시설 8곳 중 중증장애인 프로그램은 5곳에만 존재하며, 프로그램 내용은 5개소 전부 '1:1 수영' 뿐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중증장애 생활체육 시설과 프로그램, 지원인력의 부재를 반영한다. 한편, 장애인 이동권의 침해는 생활체육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장애인 휠체어리프트가 구비된 셔틀버스는 극히 일부 시설에만 존재하고 있으며,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다. 이처럼 생활체육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장벽들을 넘어야만 했다.

스포츠란 무엇인가?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체육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막아선 것은, 단지 접근성과 이동권만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패럴림픽에서 드러나듯, 장애인의 스포츠와 운동은 '잘 운용되는 정상적인 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올림픽과 비장애인 스포츠의 형식을 그대로 빌려왔다. 시각장애인의 재활에서 출발한 '골볼'과 뇌성마비 장애인 사회에서 고안된 '보치아'가 패럴림픽 종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상 장애인의 몸의 운용을 중심에 놓고

행해진 스포츠 종목은 매우 드물다.

비장애인의 소위 '정상적'인 몸을 상정하고 만들어지고 행해진 수많은 스포츠 종목들 앞에서, 중증장애인의 체육에의 권리는 '체육시설에의 접근성', '이동권'을 넘어선 보다 근본적 고민들을 불러일으킨다. 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우사인볼트의 100m 달리기.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결승선을 통과하는 달리기 선수의 모습은 올림픽의 상징적 장면이다.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의 스포츠는, 운동은, 체육은 이처럼 몸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작업이어야 할까?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몸을 잘 쓸 수 있는 방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할까?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의 체육은 비장애인의 스포츠와, 병원에서의 재활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라야 할까? 중증장애인의 체육활동에



³⁾ 한승엽 외(2018)에서 재인용.

⁴⁾ 한승엽 외(2018)에서 재인용.

⁵⁾ 이남형, 노형규(2018),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이상과 현실-자격증 취득 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특수체육학회지"

의 권리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 개발의 필요성'에서부터 '스포츠란 무엇인가?', '몸을 잘 운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이르기까지, 스포츠와 운동, 체육, 재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한다.

새로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체육'을 상상하며

그렇기에 '인권체육대회'를 기획하며, 어떤 종목이 보다 '인권적'일지를 고민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다. 그 고민의 산물로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가 짝을 이뤄 여러 관문을 돌파하는 인권-이어달리기가 고안되었지만, 이것이 중증장애인의 일상적 운동이 되기는 힘들어 보였다. 일 년에 한 번 있는 체육대회가 아닌, 일상의 생활체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새로운 상상과 새로운 권리가 필요할까.

노들야학 인권체육대회가 끝나고, 춘천에서의 모꼬지의 밤은 길게 이어졌다. 마로니에 공원의 교실을 오랜만에 벗어나,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2018년의 추억을 장식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노들야학 체육대회와 모꼬지는 이어질 것이다. 함께 모인다는 '모꼬지'라는 말의 의미처럼, 서로 다른 몸과 마음으로 함께 모여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체육대회와 모꼬지가 새로운 몸과 마음, 새로운 권리를 상상하며 더욱 '인권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노들야학의 1년을 책임지겠다!

2019년 노들장애인야학 총학생회장 후보자 토론회 실황

박임당

노들야학 교사. 2019년부터 노들에 좀 더 오래 앉아있기로 했다.

[2019년 노들장애인야학 총학생회장 후보자 토론회]

- 장소: 교실 2,3,4
- 시간: 2018년 12월 21일 (금) 오후 5시(1, 2교시)
- 사회자: 김도현

오랜만에 단일 후보가 아닌 경합이 있었던 2019년 노들장애인야학 총학생회장 선거. 뻔하고 슴슴할 것만 같았던 총학생회장 후보자 토론회, 막상 토론회가 진행되자 후보자들 간의 팽팽한 토론이 이어졌다.

기호 1번은 거침없는 발언에서 패기가 느껴졌던 신진 후보 태종×호연,
기호 2번은 경력직의 노련미가 돋보였던 탄진×애경.

두 팀의 매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실황 중계에 가까운 느낌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전해보겠다. 후보자들의 말맛을 살리기 위해, 최대한 후보자의 어투에 가깝게 기록을 남긴다. 현장 질문 외의 질문들은 미리 취합해서 사회자가 후보자들에게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후보 공통 질문도 있고, 특정 후보 진영에 한정된 질문도 있었다.



기호 1번
임태중×조호연



기호 2번
김탄진×장애경

● **여는 발언**

태중 여러분들을 위해 발로 뛸거니께잉 많이 도와주세요.

애경 뭐든지 다 같이 합시다.

● **투쟁에 대한 입장**

태중 우리가 장애인이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주권을 찾으려면 집회 나가야지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화를 하고 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탄진 투쟁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 투쟁에 참여할 수 있게 조직하겠습니다.

● **노들야학 수업 시스템에 대한 의견**

호연 지각하는 학생들이나 결석하는 학생들이 줄어들 수 있게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해서 되도록이면 출석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태중 우리가 학교를 같이 하다 보면 일찍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30분 땡기고 30분 일찍 끝내면 어쩌냐 하는 의견을 묻겠습니다.

애경 공부를 잘 하려면 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공개방송에서 본 몸 살림 운동이 있다. 몸 살리기 운동을 수업의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켜 보겠다.

● **야학 운영에 필요한 후원 예산 마련에 대한 방법은?**

태중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려면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친구들 만나면 후원 얘기를 하고, 나도 생기면 더 내고, 한 푼이라도 후원 더 할 수 있도록 주변에 얘기를 하고 다니다.

탄진 직장 내 인권개선 교육 나갈 때 야학 CMS 용지를 가지고 나가겠다.

● **회의 참여율 높이는 방법은?**

태중 회의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제 의견은 달라요. 국회 가보시면 다들 놓고 보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총 학생수가 지금 오신 분들의 2배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절반밖에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해서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두 분이 어쩌다가 같이 나오게 되셨는지?**

태중 그거는요 내가 먼저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대답을 해갖고 같이 나오기로 약속을 한 거지요.

● **생일 선물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꾸는 이유는?**

호연 총무 역할을 하다 보니 알게 됐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필요한 것은 문화상품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는 시장 쪽에 가서 물건을 사든지 하려면 온누리가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상품권으로 계속 받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따로 말씀해주세요.

● **임기는 1년인데 제주도 모꼬지 3개년 계획은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

탄진 내년 2월 달부터 시작이니까 제주도 가는 것을 총학생회의에서 3년짜리 계획으로 안건을 낸다. 통과가 되면 회비와는 별개로 학생들과 적금을 들고, 후원을 모집하겠다. 그리고 다음 학생회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하겠다.

● **적금은 얼마씩이고, 최종 목표금액은 얼마인가요?**

탄진 학생회비와는 별도, 1인당 36만원. 즉 한 달에 1만원씩 더 내는 것. 후원금도 모집하겠다.

● **3년 후를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장기집권의 목표 아닌가? 다음 임기 회장이 이를 반대하면 어쩔 것인가?**

탄진 3년 기한의 안건으로 총학생회의에서 통과시키

면 다음 학생회는 그를 이어받아야 한다.

● **1주일 미출석 시 생일선물을 주지 않겠다는 정책의 취지는 무엇이고 학생들의 불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애경 생일 달에 오면 받으면 되는데, 꼭 지나고 얘기해. 생일 달엔 회의에 잘 나오자.

● **현장 질문**

영은 탄진 애경 후보 내년에 총학생회장이 된다면 저를 총무로 임명하겠습니까?

애경 그건 되고 나서 정하겠다.

지호 옛날에 똑같은 제주도 모꼬지 공약이 있었는데 왜 못 갔는지?

애경 그때는 누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반드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 **서로 후보 진영에 질문**

태중 오늘 반장 회의를 하고 왔는데, 제주도 놀러간다고 했는데, 회비도 우리가 만원 내는데 거기서 5천원 깎자고 얘기 나왔어요. 근데 만원 더 건자는 게 말이 되나요?

애경 아까 그거는 회식할 때, 단합대회 비용이다.

도현 그렇긴 하지만 학생들이 학생회비를 만원씩 내는 것도 잘 안 견디는데 관촬겠냐는 질문인 것 같다.

호연 학생 수가 많지만 회비를 내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된다. 사정 때문에 못 내는 학생도 많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며, 비행기를 잡을 때도 휠체어 같이 타려면 비용이 엄청날 텐데?



2009년, 우리는 거주시설에서 모든 것을 걷고 탈출했다

- 프리wel 탈출자 김진석 학생이 본 mbn 왜곡 보도 이야기 -

김진수

노들야학 진수입니다.

김진석

노들야학 진석입니다.

애경 내 생각엔 내가 가 봤으니까, 가고 싶으면 모을 수 있다. 총학생회에서 학생들의 욕구가 확인된다면 회비와는 다를 것이다.

지호 가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 활보는 어떻게 하나?

애경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 활보는 같이 회식 가도 돈 내고 하나까 돈을 좀 받으면 된다.

탄진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집회)참여를 독려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호연 각 반별로 요일을 정해서 참석하고, 출석을 인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마지막 발언

호연 신중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태종 여러분 회장을 맨날 한 사람 또 하고 한 사람 또 하고 하지 말고, 새로 나온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애경 집회 조직 잘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상대후보가 잘 안 나온 것 같다. 평소에 열심히 나온 사람을 뽑아 달라.

● **선거 결과: 기호 1번 태종×호연 후보가 13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석암재단(현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생활인비상대책위원회는 '2009년 마로니에 8인' 석암재단에서 탈시설을 요구한 8명의 장애인을 중심으로 모인 연대체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사자모임 '벗바리'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은 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석암재단 생활인 등의 탈시설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우리는 2018년 11월 12일 MBN뉴스8 프로그램(이하, 11월 12일 뉴스)에서 보도한 장애인 탈시설에 관한 허위·왜곡된 보도를 규탄하고, 탈시설을 가로막는 MBN의 각성을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1월 12일 뉴스에서 김주하 앵커는 '탈시설화'란 단어가 생소하다며 탈시설에 관한 냉소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2009년 석암재단 '마로니에 8인'은 감옥 같은 시설에서 서울시에 탈시설 후 거주할 주택과 서비스를 요구하며 목숨 걸고 탈출했는데, 김주하 앵커는 뉴스 데스크에 앉아서 자신의 기준으로 우리의 탈시설을 평가했습니다.

11월 12일 뉴스에서 MBN이 보인 안일한 태도, 지난 구 석암재단에서 벌어진 비리에 관한 내용과 헌법인이 추진하는 개인별 상황에 맞춘 탈시설 지원의 내용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MBN이 11월 12일 뉴스에서 장애인의 탈시설에 관하여 냉소적인 보도를 하므로 종국에 장애인의 시설 수용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통념을 강화한 것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도 사람이라면 거주시설에서 평생 보호받는 통제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보편의 권리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주시설은 폐쇄되어야 하고, 모든 거주시설 운영자와 노동자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적극 추진해야 직무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MBN은 11월 12일 뉴스에서 탈시설을 왜곡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프리웰 산하 향유의집의 장애인 권리를 위한 탈시설 지원, 시설 폐쇄 추진을 마치 어떤 의혹을 덮기 위한 행동으로 곡해하고 있는 것이죠. 11월 12일 뉴스는 결과적으로 결국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를 위해 추진하는 탈시설을 가로막는 형국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11월 12일 뉴스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에 관한 고민 없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마땅히 시설에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못 박은 MBN 언론의 알팍한 인권 감수성을 보여주는 행태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가로막고 장애인의 시설 수용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통념을 강화하는 MBN의 11월 12일 뉴스 보도를 규탄하며 언론으로서 각성과 반성,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사건에 관하여 사실에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의 권리 의식에 기반한 공정히 중재하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이 기자회견의 내용이다. mbn 보도 내용의 구체적 문제에 관해서는 해당일 방송을(11월 12일 mbn 8시 뉴스) 검색해 보면 되겠다. 아무튼 위에 쓴 제목은 기자회견 제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고, 그 제목 밑에 이어지는 문장이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기에 탈시설 정책을 가로막는가'라는 문장이다. 당신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언론이라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 가

치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시설이라는 말은 빼고 생각하더라도, 억압과 자유 중에 자유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시설이라는 곳이라면 더더욱 말이다. 형이 마지막에 쓴 '자유로운 삶 시설 밖으로'라는 문장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나는 프리웰 재단 산하 누림홈이라는 시설에서 3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진석이라고 한다.

지난 2018년 11월12일에 MBN방송에서 프리웰 및 향유의집 시설에 관한 기사를 보고 왜 저런 기사가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속사정은 알 수 없었지만, 방송기사의 내용이 너무나 잘못 됐구나 라고 생각했다. 사실 프리웰재단이 있기 전에 원래는 석암재단이 있었고 재단 산하에 있는 향유의집 시설은 석암 베데스다요양원이었다. 석암재단에서 많은 운영비가 생겨서 석암재단은 없어지고 지금의 프리웰 재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고, 오늘날 많은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해서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잘못된 진실을 방송함으로써 탈시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실추시키게 되었다. 그래서 프리웰재단 산하 시설에서 탈시설을 해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MBN방송사가 있는 프레젠테이션 앞에서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

이번 MBN방송보도 기사를 보면서 프리웰재단에 대한 속사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은 없어져버린 석암재단 산하 시설 이용인들이 석암비리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오늘날 석암이라는 비리시설을 없애고, 지금의 프리웰재단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탈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시설을 나와 자유로운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의 석암시설에 대한 운영비리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 하고 무조건 탈시설을 내세워서 시설 이용인들을 내보낸다는 식으로 방송을 하니 시설을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분노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과거의 석암재단이 운영비리로 인하여 고스란히 지금의 프리웰재단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서 프리웰재단 산하 시설인 향유의집, 누림홈 등에 살고 있는 많은 시설이용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자립을 해서 시설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복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자유로운 삶. 시설 밖으로.

노란들판, 영화 <어른이 되면> 시사회에 다녀왔어요.

해니

노란들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어머니께 저에 대해 예언(?)했던 것처럼 (어쩌면 평생...) 자주 지각하고(늦고), 여전히 그때처럼 입술을 종종 피가 날 때까지 뜯으며, 가끔씩 도망가고 싶고, 그래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 때때로 다행인 '햇'입니다..

노란들판 사람들과 영화 <어른이 되면> 시사회를 다녀왔어요. 작년 12월 5일 저녁 8시에 대한극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시네마달 CinemaDAL'의 시사회 초대로, 고마운 마음을 가득 담고 11명이 참석했습니다. 12월 13일에 개봉한 <어른이 되면>은 중증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13살이 되었을 때 장애인 수용시설에 보내졌던 동생 '혜정'과 감독 '혜영'이 18년 만에 함께 살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작품입니다. 아래에 영화 소개 내용을 옮겨 왔어요.



“혜정아, 왜 언니 눈을 안 봐?”
“언니는 왜 맨날 시켜?”

함께 살기로 마음먹었다고 모든 것이 갑자기 내 결심에 맞게 변하지는 않는다. 혜정과 함께 살아가려면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했다.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함께 살기 시작하니 힘든 순간들이 찾아온다..

우린 결국 떨어져 살아야 할 운명일까?
우린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나에게는 나보다 한 살 어린 여동생이 있다. 동생은 단지 중증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13살이 되었을 때 장애인수용시설로 보내져 30살이 되도록 그 곳에 살아야 했다. 나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그런 동생의 삶을 동생 스스로 선택한 적이 없다는 것

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동생을 다시 사회로 데리고 나와 둘이 함께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렇게 다시 함께 살기 시작한 우리 자매의 첫 6개월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 2018년 제2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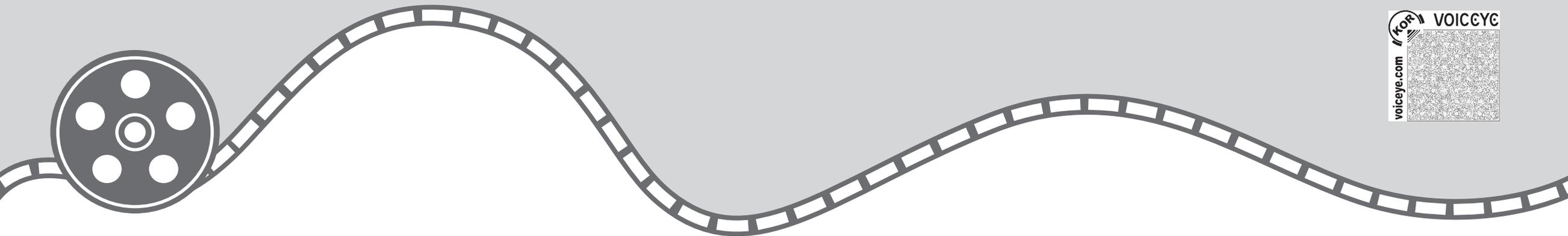
* 출처: <https://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121204>



그들에겐, 엄청나게 크고 두꺼운 벽과 마주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영화를 보는 순간순간 아픔을 느끼면서도 문득 크게 소리를 내며 웃게 되고, 어느 순간 온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영화 상영 후에 장혜영 감독과 관객들의 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극장 안을 가득 채운 관객의 수만큼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영화에서 혜영은 혜정과 함께, 만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혜정이 흥겹게 춤을 추는 장면도 등장하는데 '자매의 흥'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혜영의 노래는 가만가만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는 느낌입니다. 혜정이 말하는 단어들 기발하고 재미있다는 생각과 동시에 시적이고 아름답다는 느낌을 갖게 했었기에 저도 이 질문에 공감했습니다. 마지막에 장혜영 감독이 이 영화는 동생과의 일상을 기록한 영화이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해 외치는 비명소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꼭 기록되고 말해야 하는 영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에서 혜영은 내레이션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이 되면> 영화 속에 두 자매는 많이 웃고, 때로는 싸우고, 자주 힘든 일상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함께 보내는 일상을 지키기 위해 시도하는 일들이

“만약 우리 엄마에게 24명의 친구가 있어서 하루에 한 시간씩 혜정을 돌봐줄 수 있었다면 우리 엄마는 그 젊은 나이에 엄마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말을 들으며 24명의 친구들, 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의 엄마와 친구들을 생각했습니다. 혜영, 혜정이 요일마다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둘이 함께 사는 것이 숨통 트이는 일상일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나중에 아니라 지금, 노력과 투쟁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사회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자매가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 단단한 목소리로 (영화를 보는 이의) 마음을 깨우치고 발견하게 합니다. 혜정이 혜정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서 모든 사람이 온전히 그 사람의 모습답게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존재하도록. 삶의 방향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누군가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혹은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분리하거나 헤어지지 않도록. 인간이 같은 인간 위에 군림하여 그의 자유를 침해하고 지배하는 일이 없도록. 더 이상 참혹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혜영이 멀리 있는 시설에 혜정을 두고 살아온 세월 동안 느꼈을 슬픔과 고통을-소중한 존재를 저 뒤에 남겨놓고 떠나서는 돌아보지 못한 채 앞으로만 걸어가야 하는-더 이상 겪지 않도록.

영화를 함께 본 노란들판 사람들의 이야기



누구나 좋은 영화를 볼 자유가 있죠. 행복한 인생에도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어른이 된 두 자매의 새로운 인생. 때론 힘들고 슬플지라도 흥나게 지역에서 살아요! 추천합니다.

★★★★★ - 교수

뭔가 많은 감정이 들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장애인을 가족이 책임지고 누군가가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적 시스템이 생기길 바라요. 시간이 지나 언젠가 <어른이 되면> 2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 둘째 언니 혜영님이 아닌 혜영님 그 자체의 모습, 자매의 일상 이야기를 만나고 싶어요.. - 연주

혜정님을 '노란들판의 꿈' 때 처음 보았다. 흥이 많고 커피를 무지 좋아하는 모습에 캔 커피도 선물했었는데, 영화에서 보니 괜히 더 반가웠다:) "함께하는 삶이 서툰 당신에게 전하는 위로와 용기"라는 홍보 슬로건을 보고 영화를 보기 전부터 마음이 따뜻했다. 발달장애를 가진 여성의 성공담(?)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담은 얘기라서 더 유쾌하고 재미있었고, 따뜻함과 더불어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GV때 <어른이 되면>이라는 영화는 한편으로 비명소리를 뜻하기도 하다는 둘째 언니의 코멘트가 나에게 어떠한 울림을 주었고..! 생각 많은 둘째언니 혜영님이 인간적으로 참 멋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수 짹짹) 개인적으로 둘째언니 앨범 중에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노래도 좋지만 '연약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이 아냐'가 더 좋다~ "연약하다는 것은 용감하게 산다는 것이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로 후기 마무리
~★★★ - 실롱

오랜 시간을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 함께 산다는 것, 중증발달장애인과 함께 산다는 것. 영화를 보기 전에는 무겁고 답답하거니만 할 줄 알았던 영화인데 재미있게 잘 봤어요~ - 민정

[노들 책꽃이]

창조와 한나, 그리고 나 〈한나 아렌트, 사유의 전선들〉을 읽고

최재민

노들야학 휴직교사.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얘기를 엿듣는 것만큼 재미난 일이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문학계의 샐러리맨이라면? 나의 친구 창조가 한나 아렌트에 관한 책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이 책을 읽으면 창조가 한나 아렌트와 나누는 얘기를 듣는 기분이겠거니 기대했다. 그런 기대감으로 창조의 책 〈한나 아렌트 사유의 전선들〉을 서점에서 집어 들었고, 이 둘의 수다를 엿볼(읽을) 생각에 약간 설렘했다.

설렘을 갖고 시작했으나 책읽기는 쉽지 않았다. (351쪽 ㅍㅍ) 다만 책을 읽다가 위로가 된 것은 책을 읽어보니 한나 아렌트란 사람은 내가 책읽기로 고생하는 현실에 비하지 못할 정도로 고생캐나 한 사람이었다. 한나가 살아가던 시대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시대여서 한나는 유대인이면서 난민 무국적자로 여기 저기 떠돌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치 이 땅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나, 자기 몸을 누일 이부자리 공간 없어 장애인거주시설에 격리된 시설 거주인의 삶처럼 삶이 답답했을 것 같다.

그런데 한나는 반유대주의로 억압받고 타국에서 눈칫밥 먹으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비(非)-시민으로서의 정체성 ; 난민 무국적자이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인정했다. 그 정체성의 토대 위에서 살면서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자 분투했다. 어디까지나 아무리 무슨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정체성으로서 살아야한다는 명확한 현실인식 속에 있었던 사람.

한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 한나는 라자르가 정의한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라는 의미의 파리아라는 개념을 가져와 파리아의 삶에 관해 말했다. 파리아의 삶은 억압적 현실 그 자체와 맞부딪히며 현실성을 더욱 드러내준다고 말하면서, 파리아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똑바로 인정하고 의식적으로 자신의 유대인이란 정체성 도태 위에서 자기 해방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정치적 책무를 말하면서 말이다.

나는 이 대목에서 한나가 창조의 친구이지만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27개 뼈를 가진 오른손과 다르게 왼손 뼈를 15개 정도만 갖고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나를 장애인이라 부른다. 지하철을 타면 힐끔거리고, 비장애인 중심의 세계에선 나는 파리아가 된다. 사람들의 시선의 저 편에는 '너는 나보다 하등한 존재야'라는 의식이 있다. 귀찮고 싫은 일이다.

2007년, 언젠가 장애를 가진 아들을 낳으시고 하늘이 노렸다고 고백한 나의 어머니는 허리 디스크에 걸리도록 열심히 식당을 운영한 돈으로 내 손가락을 비장애인으로 만드는 수술을 시켜주겠노라고 대학병원에 나를 데려갔다. 이천만원. 그 당시 의사는 모양은 오른손과 동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서, 이천만원을 들여 수술해보겠냐고 말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아니오. 나는 내 손이 좋아요.'

나는 비장애인처럼 살아가기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냥 이질적인 손을 갖는다는 게 싫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고집을 부려서 이런 손을 갖고 태어났는데, 지금에 와서야 장애인으로 딱지 붙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꾼다고 노력하는 게 싫었고 그냥 이 손을 갖고 살겠다고 다짐했다. 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기 때문인지 나는 어느 시공간에 태어났어도 장애를 갖고 있었을 것만 같았다. 뭔가 이러한 정체성이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을 반짝거리게 만드는 뭔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거창한 정치적 용어로 그걸 해방이라고 하나 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
창조가 한나 아렌트와 나눈 얘기를
듣는 기분이었거나 기대했다.
그런 기대감으로 창조의 책
〈한나 아렌트 사유의 전선들〉을 서점에서
집어 들었고, 이 둘의 수다를
엿볼 생각에 약간 설렘.

내가 얼마나 해방적 삶을 살아가는지 자신 없고, 대단치 않지만 나는 나를 포함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인권 활동가다. 한나는 유대인의 자기 해방을 위해 분투했고 나는 장애를 가졌으니, 한나의 삶에 나의 삶을 빚대면 장애 해방을 위해 분투하는 셈인데 아무튼 한나가 나랑 뭔가 통하는 구석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꾸역꾸역 〈노들바람〉에 내 삶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것도 기억과 이야기를 강조한 한나가 말한 활동적 삶의 작업에 해당하는 일인 것 같고, 갈팡질팡하지만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하는 것도 단순 돈-벌기가 아닌 뭔가를 남기겠다는 활동이니 노동이면서 작업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한 가지는 한나가 우정의 관계를 추구했다는 점이다. 슈테른뿐만 아니라 발터 벤야민과도 깊은 우정을 나눴고, 야스퍼스라는 괜찮은 스승을 두기도 했다. 이런 한나가 시간과 공간의 먼 길

을 건너 창조와 멋진 우정의 관계를 맺었고, 또 그 이야기를 엿듣고 나 또한 한나와 어느 정도 친구 관계를 맺었음을 이 지면을 통해 확인하고 싶다.

한나가 전체주의 운동이 승리했던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얘기하며 '직업인들'로 가득한 현대 사회를 꼬집은 것들도 얘기하고 싶지만, 지금 나는 함께 장애 인권 운동을 하는 동료들과 M.T.에 와서 조출하지만 성대한 마지막 뒷풀이 자리를 남겨두고 있기에(사실은 지금 뒷풀이 자리에 빠져나와서 글을 쓰고 있는 중이다.) 한나가 우정의 관계를 중시한 것을 기억하며 술자리로 이만 가려한다.

창조 형이 우정의 천재 아렌트를 정말로 좋아한다면 글쓰기를 이만 줄이고 술자리로 신나게 향하는 나를 이해하고, 또 내 글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멋진 저녁 식사를 한 끼 사줄 것이라 믿는다.

2019년 1월 노들과 함께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CMS후원인

(주)머스트자산운용 강남훈 강병완 강복현 강선아 강성운 강수혜 강영미 강용원 강유선 강윤석 강주성 강태영 강현욱 강혜민 강희관 강희연 고경신 고경화 고동수 고명호 고명희 고병권 고선희 고수진 고승현 고아라 고아연 고재현 고정화 고제현 고혜순 공명렬 공선화 공정옥 공태윤 공호신 광남희 광노근 광상아 광성자 광영미 구민재 구세나 구승기 구영철 구현아 권경숙 권기원 권도연 권미경 권병주 권영주 권영진 권오현 권용희 권우정 권은영 권익재 권진영 권태국 권혁은 권현기 권혜선 김가경 김가국 김건욱 김건형 김경남 김경란 김경아 김경은 김경준 김경혜 김계숙 김관희 김광국 김국란 김규태 김근식 김금례 김금순 김금정 김기룡 김기오 김남수 김누리 김다는 김대희 김덕중 김도경 김도현 김동림 김동은 김동진 김두경 김두섭 김란희 김명애 김명학 김명화 김문옥 김문호 김미선 김미성 김미영 김미옥 김미주 김미현 김민 김민립 김민아 김민영 김민자 김민호 김민희 김범순 김범식 김보라미 김보민 김보영 김봉덕 김봉석 김부연 김상수 김상원 김석규 김선미 김선아 김선영 김선욱 김선희 김설민 김성미 김성은 김성현 김세영 김소명 김소희 김수경 김수영 김수정 김수한 김수현 김수호 김숙영 김숙이 김순남 김아람 김안지 김애경 김연성 김연수 김연자 김연정 김연준 김연지 김연희 김영년 김영미 김영민 김영선 김영수 김영숙 김영승 김영욱 김영자 김영희 김용남 김용성 김용우 김용욱 김용진 김용태 김우경 김원숙 김유미 김윤경 김윤석 김윤자 김윤정 김윤진 김은순 김은아 김은정 김은주 김은희 김이중 김인숙 김인자 김재경 김재양 김정미 김정민 김정범 김정숙 김정순 김정하 김정현 김중호 김중환 김주현 김준 김준호 김준휘 김지민 김지숙 김지순 김지연 김지영 김지원 김지은 김지환 김진수 김진우 김창배 김철순 김춘우 김탄진 김태승 김태인 김태형 김태훈 김판균 김푸른솔 김필순 김하선 김하영 김하은 김한민 김한솔 김한준 김한진 김현영 김현미 김현식 김현영 김현화 김형근 김형배 김형호 김혜경 김혜옥 김혜원 김혜진 김홍수 김희정 김희찬 김희창 나귀환 나선영 나혜니 남대호 남두형 남수혁 남정민 남지현 남효진 노경애 노규호 노미경 노상경 노익현 노현택 노혜련 도희선 도희정 류명옥 류승화 류정숙 류정하 류지왕 류향희 류혜인 마미주 마효영 맹보영 모경훈 문건화 문경희 문병준 문상빈 문상태 문성원 문소리 문송이 문예진 문은영 문지의 문창배 문화정 민세연 민혜숙 박경석 박경숙 박경아 박경혜 박경화 박계선 박금숙 박누리 박란희 박명숙 박민경 박민영 박보건 박상일 박상호 박서진 박서희 박선미 박선에 박선은 박성욱 박성희 박세단 박세진 박세호 박소영 박수진 박승원 박승하 박시백 박애경 박연희 박영민 박영환 박은솔 박완신 박유리 박은경 박은미 박은정 박임당 박장근 박장근 박장용 박재국 박정숙 박정우 박정원 박종진 박종철 박종화 박주원 박준호 박지민 박지연 박지영 박지우 박진우 박찬양 박태수 박하순 박현희 박현희 박효경 박홍석 반영신 방복순 배경원 배문섭 배승천 배인나 배운주 배진숙 배치녀 백미라 백상현 백수경 백승혜 백은희 백은희 백재선 서남교 서동석 서명순 서명아 서민영 서민호 서봉경 서유나 서은수 서정웅 서주형 서찬욱 석유연 석지윤 선우대롱 선혜란 설아라 성서연 성정현 성창기 소현미 송동국 송병갑 손석철 손성권 손성환 손은경 손자경 손정수 손제주 손주영 손준희 손혜연 손환목 손희경 송병준 송상준 송선화 송영란 송은영 송중호 송주훈 송창국 송현정 신미숙 신복순 신봉준 신수정 신숙희 신순영 신승에 신안수 신연실 신영근 신원정 신은덕 신은희 신임식 신진 신현훈 신희숙 심귀환 심미경 심선진 심은선 심이영 심정구 아리 안경호 안경희 안남희 안문필 안바라 안석호 안선영 안소진 안연주 안영춘 안정원 안정은 안종녀 안중선 안향미 안혁순 안희옥 양석주 양수경 양수정 양운근 양인순 양정화 양현준 어수진 엄재균 여준민 연호준 오미영 오보람 오상만 오세령 오영미 오원주 오은석 오은영 오정자 오정희 오지은 오진희 오현숙 옥샘 우시우 우영선 우인숙 원명재 원민희 원성현 위순철 유기훈 유남숙 유문수 유미선 유보배 유영순 유윤영 유지영 유지에 유하연 유희준 윤경훈 윤기남 윤기봉 윤길중 윤동주 윤명섭 윤미라 윤미선 윤민진 윤봉섭 윤석규 윤선기 윤승용 윤승원 윤유정 윤이용 윤정미 윤정민 윤정은 윤정임 윤준서 윤현숙 윤호진 윤화숙 윤희 이강선 이강수 이강학 이건호 이건희 이경근 이경덕 이경아 이경옥 이경은 이경운 이경호 이경희 이계성 이광만 이광재 이근자 이근희 이금주 이기순 이길용 이나라 이남경 이도현 이도혁 이라라 이리나 이명화 이미리암 이미봉 이미영 이미정 이민숙 이범민 이병준 이비환 이상림 이상우 이상준 이서윤 이서준 이석원 이선진 이선희 이성연 이성호 이소정 이숙자 이수연 이수영 이수정 이순옥 이승헌 이승훈 이말찬 이연옥 이연주 이영덕 이영란 이영미 이우현 이원진 이원태 이원경 이유미 이유진 이윤경 이윤옥 이윤지 이은숙 이은정 이인서 이인성 이인영 이장우 이재령 이재승 이정란 이정민 이정숙 이정실 이정옥 이정은 이정화 이정희 이재성 이재현 이종국 이종란 이종민 이종숙 이종실 이종운 이종현 이종환 이주오 이주옥 이준길 이지수 이지연 이지영 이지은 이지혜 이지환 이진실 이진영 이진주 이진

후원방법 안내

1 후원계좌 안내

• 노들장애인야학

국민은행 488401-01-202282
신한은행 110-025-510184
농협 029-12-200545
우리은행 470-07-035448
하나은행 757-810128-43007
외환은행 170-19-30457-4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민은행 031601-04-165177

• 장애인극단판

국민은행 488401-01-202141

• 현수막공장 노란들판

우리은행 1005-201-820597

2 정기후원

희망하는 일정금액을 기부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CMS(노들로 연락)와 직접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방법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일시후원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www.nodeul.or.kr 홈페이지 참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원인의 고마운 나눔이 있기에 노들은 살아갑니다.



희 이찬미 이창열 이충희 이태곤 이학인 이한호 이현명 이현숙 이현아 이현옥 이현진 이호상 이호연 이호중 이효정 이효진 임경희 임나미 임동근 임동준 임명애 임산하 임성순 임세연 임영희 임원택 임유청 임윤아 임은영 임은정 임인자 임재연 임종현 임주현 임채원 임태경 임태중 임향연 장경주 장귀분 장근영 장명희 장미희 장상순 장선영 장선정 장성권 장성아 장순임 장옥란 장원 장유경 장정아 장정환 장제형 장춘환 장혜미 장효정 전경래 전권세 전기성 전대진 전미라 전미영 전민숙 전상우 전성자 전영록 전옥 전은주 전주규 전형진 정규영 정다운 정대수 정명진 정미란 정민구 정민석 정상엽 정상욱 정선애 정선옥 정성락 정성철 정승이 정승희 정연숙 정영란 정영석 정영자 정용균 정용일 정용화 정용훈 정우중 정우준 정운영 정유진 정은경 정이성 정익화 정재훈 정정민 정정희 정종권 정종현 정종화 정중훈 정지영 정지혜 정진영 정진이 정창조 정태영 정태원 정택용 정하영 정현강 정현진 정혜림 정혜영 정호준 정훈 정희진 조경애 조규남 조미숙 조미연 조미정 조사랑 조성진 조수안 조윤경 조윤실 조윤정 조은별 조은주 조은진 조은현 조혁진 조현경 조현수 조혜민 좌동엽 좌미경 좌혜경 주상연 주상희 주영은 주용춘 주은아 지덕근 지세진 지영숙 지혜롬 진영욱 진영인 진태원 차순정 채이배 천성호 천영희 천종민 최귀선 최귀숙 최기상 최등호 최미란 최민경 최별 최병희 최보경 최서연 최석문 최선아 최승근 최승우 최안순 최열분 최영식 최영은 최영인 최영자 최우영 최윤정 최은경 최은숙 최은아 최은정 최은화 최은희 최재희 최정민 최정원 최정은 최주형 최지영 최지우 최진영 최진희 최찬일 최천봉 최하정 최한별 최현정 최현희 최혜영 추경진 탁현철 태미화 하경남 하금철 하인혜 하정자 한경호 한남희 한래희 한명숙 한명희 한상배 한상엽 한선희 한성안 한성희 한주영 한혜선 한혜원 한희자 허보영 허소아 허숙자 허순인 허신행 허영신 허완수 허정일 허진태 허창 허효재 홍도순 홍명희 홍석현 홍성미 홍성호 홍세미 홍순민 홍순희 홍영선 홍영희 홍은전 홍은진 홍주영 홍진표 홍철기 홍현준 홍혜리 황무초(무밍) 황보솔 황성운 황승미 황인현 황정희 황진미 황하연 황혜전 황희준

계좌이체 후원인

(주)지암메디테크 강귀화 강수혜 김경애 김도현 김미선 김선심 김용철 김태은 남남승 동송교회 서금석 신동길 신희숙 안성희 에리스 엠알엠글로벌 연대합니다 오선실 오선에 오장환 유동훈 윤지형 이한진 이현숙 이현우 이호상 조광배 차한콜위드고 티에이치엘 허병권 황미향 황재숙 희망열차(김낙현)

물품 후원

- 12월 • 한살림 쌀 90kg /책방이음&나와우리 쌀 40kg /승인교회 쌀 20kg /사회복지연 회원 쌀 50kg /서울교통공사 나눔봉사단 스탠드칠판 1개,스탠드조명 2개 /권수정 서울시의원 김치 100kg /꿀잠 쌀 20kg 28포대, 김치 큰 3봉지 /육인교회 쌀 10kg 19포대, 신라면 19상자 /김경란 굴 2상자 /임난이 바나나, 굴 /길음중 합복지관 빵 4봉 /장미화 쿠키 /엠엔 와이 겨울자켓 /손성한 장갑 2상자 /스파인 2000 시 스피커, 삼겹살
- 01월 • 한살림 쌀 90kg /승인교회 쌀 20kg /임태중 쌀 10kg /모두의 부엌 채식 김치 1상자 /삼달다방 무 1상자, 브로콜리 1상자, 양배추 1상자, 당근 1상자 /평화의 나무합창단 조영주 식용유,밀가루 5세트 /한은화 월 10개 /조희자 굴 1상자 /김형조 과자 /박지예 사과 1상자 /김행옥 바나나 /김효숙 배



노란들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며 일하는 실사출력, 인쇄디자인 전문 사회적기업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평등한 일터, 서로의 꿈이 상상하는 곳, 모두를 위한 들판을 꿈꿉니다.

디자인 + 인쇄 · 실사출력 · 타이벡
T 02.469.9101 H www.norandp.co.kr

NEW BRAND 공생공장

타이벡 made with DuPont™ Tyvek®

사람과 자연이 같이 살아가며 만드는 곳

‘공생공장’은 타이벡 원단 소재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기존 일회용 현수막을 대체하는 노란들판만의 업사이클링 브랜드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고자 하는 노란들판만의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공생공장은 사회적기업 노란들판의 친환경 브랜드입니다. 노란들판의 감성을 담은 디자인 제품으로 찾아가겠습니다.

Waterproof · Super Light · 100% Recyclable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H.P www.ncil.or.kr
EMAIL nodl@hanmail.net SNS @nodcil
TEL 02-766-9103 MOBILE 010-5766-9103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H.P www.420pan.or.kr
EMAIL centerpan@420pan.or.kr
TEL 02-6082-6420

장애인활동보조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을 “모집합니다!”

활동보조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유급보조인의 다양한 보조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자격 (장애인 이용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만 6세~65세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활동보조인 자격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활동보조 기본교육 이수 필요

노들이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고 싶거나 궁금하게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T 02-766-9120 F 02-6937-1701 E nodeul@gmail.com

우리는 이상한(queer) 몸을 가지고 있다. '모든 몸은 아름답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는 말은 때때로 차별에
저항하기 위해서 채택하는 선언이지만 각자가 가진 차이들을 쉽게
지우거나 고유한 삶의 방식들을 질문하지 않게 만든다는 점에서 너무
몽뚱하고 알팍하다. 장애여성들은 정상성의 기준을 해체하고
사회의 규범에 도전하는 귀여한 사람들이며 각기 다른 몸을 가지고
고유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 어쩌면 이상한 몸 >

장애여성공감 지음, 2018, 오월의봄

노들바람은 우리의 아름다운 숲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생종이를 사용합니다.

₩10,000

